

통권197호

발행일 2008.3.15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민가협 목요집회 700회'



▲ 1993. 9. 23일부터 국가보인법 철폐 양심수전원 석방을 위해 민기협 목요집회가 15년에 700회를 맞게 되었음.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호현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박순경 선생님을 만나다 안진결 • 6 / 현장취재 • 원주 변외성씨 면회기 송지영 • 10 / 감옥에서 온 편지 이진강 외 4인 • 12 / 회원취재 • 고제헌님을 만나고 송지영 • 17 / 시 • 겨울은 가라 정관호 • 20 / 회원미당 • 수락 산행을 마치고 감약 • 21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4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6 / 재정보고 • 35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6

**④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151 -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 -141

전화: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 핵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위협하는 북침전쟁 연습

#### -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주한 미군 철거를 촉구한다 -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회장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 올 북침전쟁 연습이 남녘땅 전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6 · 15, 10 · 4 선언에 반하고 6자회담 지향에 배치되는 한미연합합동군사연습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온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첨단무기체계를 과시하며 휴전선 턱밑을 비롯한 하늘과바다. 땅에서 전개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 버웰 벨 미육 군 대장 - 이하 한미연합사)는 3월 2일부터 7일까지 이른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08(Kev Resolve/Foal Eagle)이 한반도 전지역에서 실시된다'며 이 연습은 기존의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1)을 대체하는 새 로운 명칭 연습으로 '한미연합사가 한반도 유사시 미 국의 대규모 증원군을 수용(Reception), 대기 (Staging), 전방으로 이동(Onward-movement)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원하는 전투작전을 통합 (Integration)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국면에 대해 훈 런하는 연합/합동지휘소연습'이라고 했다. 또한 '독수 리 연습'으로 불리우는 연합/합동 야외 기동연습도 키 리졸브와 연계하여 실시한다며 이러한 'Key Resolve/Foal Eagle-08연습'은 방어적(Defensive)인 '군사 준비태세 연습' 이라고 방위에 중점을 둔 연습임 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말대로 이 한미연합 합동전쟁 연습을 방어적이라고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핵선제공격연습이었던 '팀스피리트' 연습을 이은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 연습'처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도 이름만 바뀐 핵선제 북침전쟁연습이란 것은 연습목적과 규모 첨단 무기체계에서 쉽

게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대북 핵태세 보고를 통해 핵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지 역을 상대방 후방으로 확대하여 적지결전을 추구하는 이른바 공지작전(空地作戰)과 종심작전(經深作戰) 개 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바탕하여 '북한군 격멸''북 정권 제거''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수립하고, 이같은 목적을 이루 기 위해 살상력 높은 첨단 전력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공격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 08'에서는 핵 잠수함 과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원되는가 하면 태평양과 미국에서 미군 6,000명이 증원되고 주한 미군 12,000명 외에도 해상 대기 9,000명까지 미군 27,000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같은 무력증원은 지난 2월 15일 미군의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 부대의 대구 미공군기지 도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알라스카에서 8시간 30분만에 도착한 이 신속타격부대는 미국이 관련된 전쟁초기 가장빨리 작전지역에 전개하는 병력으로 여단전투팀 교리에 근거하여 군지휘통제 네트워크(C41)와 연결된 차량을 이용하는 기동부대이다. 이 부대는 24일 군사분계선(MDL)인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로드리게스(Rodriguez)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실사격을 공개하는 대북군사위협을 노골화했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연습과 첨단무기체계를 공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한 · 미 동맹강화방침에 화답하는 대북무력시위양상을 띄고 있다. 실제로 이번 연습의 언론 공개 방침에서 한미연합사 공보관은 '적극적

공개'(ACTIVE)라하였다. 예로써 2월 20일 부산항에 입항한 초대형 핵잠수함 '오하이오'호의 이례적 공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공격형 거대잠수함은 핵미사일 탑재를 위한 '탄도미사일 탑제 핵추진함' (SSBN-Nuclear-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에서 유도미사일 탑제 핵추진잠수함 (SSGN-Nuclear-Powered Guided Missile Submarine)으로 최근 개조된 공격형 잠수함이다. 초정 밀타격이 가능한 사정거리 1,609km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54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주임무는 '특수작전 요원을 이용한 특수작전'이며 한미특수요원이 탑승해 특수작전을 실시한다고 했다.

또한 2월28일엔 승선인원 6,000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Nimitz)' 호가 부산 백운포에 위치한 핵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다. 98,000 톤, 길이 332.9m, 폭 76.8m인 이 항공모함에는 축구장 3배 넓이의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으며 주한 미군전투 기와 맞먹는 80여기의 전투기를 적재하고 있음을 과시 했다. 미 최신예 전투기인 수퍼호닛(F/A-18E/F), 레 이더 교란용인 EA-6B 전자전투기(프라울러), 조기경 보기인 E-2C(호크아인-2000) 잠수함 탐지 및 공격 형 헬기(SH-60F), HH-60H 시호크 헬기 등이다. 그 리고 이들 전투기들의 이륙장면들이 3월 3일 공개됐 다. 이 항공모함 전투단은 미증원전력 종류 중 전투력 증강의 핵심전력으로 '신속억제방안(FDO-Flexible-Deterrence Option)을 통한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 전쟁초반에 전개된다. 1개 항공모함 전투단은 각종 전 투기, 전폭기 등을 탑재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축 함, 핵잠수함, 군수지원함, 이지스함 등 수십 척의 각기 능별 함정으로 편성되어 전개범위는 150km에 이른다 고 했다. 따라서 구축함 '존스'호, 순양함 '프린스호' 등이 함께 부산항에 입항하여 그 규모와 전력을 과시 했다.

한미연합사는 또한 진해 해군기지에서 미 해병대 해 상사전배치선단(Maritime-Preposition Ships)과 해상 유류분배체계(OPDS-Offshore Petroleum Distribution Systems)를 2월 26일 공개했다. 이는 모 두 한미연합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위한 것이다. 미국 은 전 세계에 3개의 해상사전배치전단을 운용하고 있 으며 각 전단은 작전시 15,000명의 해병대 병력이 30 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탱크, 탄약, 음식물, 음료 등 물 자를 적재하고 있으며 1개 전단은 4~6척의 배로 구성 되어 한척의 배가 해병대 1개 여단의 물자를 담당한다 고 했다. 이날 공개된 미 해병대 해상사전배치 전단은 '잭-럼머스'호이며 제3해상사전배치전단 소속으로 배수량 46,111톤 규모이고 700대의 각종 전투차량을 실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함께 공개된 '해상유류분배 체계'는 해상에서 유류 및 청수(깨끗한 물)를 파이프 를 통해 부두에 설치된 '유류저장소'로 공급하는 체계 로 해병대 상륙시 상륙군에게 원유를 원활하게 공급하 기 위한 훈련이며 이 훈련은 한미연합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배치된 미해병대 제 7연대 병력이 지난 3월 1일 휴전선 인근 '로드리게스'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한국해병대와의 합동훈련 장면 도 공개했다. 7연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프시에 주 둔한 부대로 미 본토 해병대 병력이 대규모로 한국에 전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한 이제까지(군사연습이) 대대급 지원부대가 배치된 적 은 있으나 연대사령부가 연대 깃발을 가지고 한국에 온것은 처음이라고 브라이던 P. 맥코이 7연대 사령관 (대령)은 말했다. 한미해병대는 사격훈련 뿐만 아니라 시가전 훈련도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발진한 F-18 전폭기 출격과 연계하여 실시했다. 사령관은 또한 '해 상사전배치 및 집결훈련' '개인 및 집단 사전 전개훈 련', 그리고 '최정예 실사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해 병대 해상사전배치전단의 전투력 및 미해병대 태평양 사령부의 전구교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이 키리졸브 · 독수리 연습에 참가한 제7연대의 임무라고 했다. 이같 은 한미해병대 합동훈련은 최근 제21차 한미군사위원

회 상설회의에서의 '한미연합해병사령부'를 '한미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로 확대창설(양해각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통합운용의 한국판이라 할 것이다.

이밖에도 키리졸브 · 독수리연습 전개에 앞서 지난 2월 22일엔 용인 55사단에서 전시지원(WHNS-Wartime-Host Nation Support) 절차모의연습을 한미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른바 '전시지원'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에게 한국정부 주관 하에 군, 민간이 지원하는 계획으로 1991년에 체결된 이른바 '전시지원 일괄협정(WHNS-UA)에 따른 것으로 '전시지원 합의각서 '는 현재 협의 중이고 ' 잠정전시지원계획 '을 세워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시지원' 계획은 한국군의 '충무계획' 에 일치시켜 합동연습에 반영시키고 있다. '충무계획' 은 한국정부의 전시대비 및 동원 계획으로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각 시, 군, 구 행정단체로부터 토지시설 뿐만 아니라 식당, 목욕탕 등 민간 소유자원까지 지원 받아 사용하게 된다.이날 공개된 브리핑에 따르면 '충 무 4800'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수송, 건설 부분이, '충무100'은 농림부 주관으로 농림자원을 '충무 4200'은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산업자원을 '충무 4900'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수산자원을 동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충무 3400'에 따라 외교 통상부 주관으로 '통일시행'이라는 계획명으로 인력 이 동원된다. 이와같은 한국정부의 미군에 대한 '전시 지원연습'은 '자원지원연습'(FTX) '현장실사' '협조 회의' '통신연습' '미예측전시지원연습' 등 5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처럼 미군의 동포를 겨냥한 북침전 쟁연습에는 병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부책임 아래 민간 부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이번 키리졸브 · 독수리 연습의 전개과정이라면 앞으로 3월6일엔 한강에서, 한미공병 대의 '교량건설' 훈련이 예정돼 있고 8일엔 '로드리게 스' 사격장에서 한,미 해병대가 '적지점'을 향해 진격 하는 '한미연합제병협동훈련'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연습을 위해 미국은 '글로벌 호크' F-22 등 최첨단 공군권력과 공격형 핵잠수함을 '괌'과 '하와이'에 배치하고 스텔기능과 핵무기 탑재 능력을 갖춘최신예 전폭기인 B-2를 순환배치하고 있다.

또한 이 연습과 때를 같이 하여 미 본토를 주임무로 하는 미9공군 20 전투 비행단 79 전투비행대대 소속 20대의 F-16 전투기과 300명 병력을 4개월간 군산 미공군기지에 순환배치하고(1월 15일) 작전임무를 총괄하는 30전투비행단 지휘소까지 함께 옮겨있었다.

이제까지 보아온 것처럼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한미연합사 말처럼 방어적인 군사준비태세연습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 전략과 작전계획, 동원된 무기체계와 부대 성격 그리고 규모로 볼 때 공격적인 전쟁연습이고 핵공격을 포함한 북침전쟁연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같은 북침전쟁 연습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군사적 표현이고 작계 5027-04에서 드러났듯이 북정권 제거라는 제국주의 침략 속성과 동북아에서의 군사패권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의 핵선제 공격 등 대북 고립 암살정책으로 유발된 이북의 핵 억제력 실현과 이로써 불거진 이른바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일정하고 진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19 공동성명과 2·13, 10·4합의정신에 정면배치되는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천번 만번 부당할 뿐이다. 따라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뿐만 아니라 '을지포커스 렌즈' 등 어떠한 형태의 전쟁연습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9.19 공동 성명에서는 Corea 반도에서의 핵 폐기와 조.미 관계 정상화, 조.일 관계 정상화, 참가국들의 이북에 대한 에너지지원, 동북아 영구평화구축 등을 공약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합의했고, 이러한 공동성명을 구체화시킨 2.13 합의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쇄,조·미,조·일 관계 정상화,미국의 이북에 대한 테러지원국지정 해제, 적성국교역법적용 종료, 이북에 대

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5 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10.3 합의에서 는 이북이 영변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핵 물질, 기술 노하우 등을 이전하지 않기로 하고, 미국은 이북에 대한 테러지원국지정 해제, 적성국교역법적용 종료, 5개국은 중유 100만톤(50만톤의 에너지 설비 등)을 제공하는 등 2007년 12월 31일까지 동시 이행 을 합의했다. 오늘 현재 6자 회담 2단계 조치(10.3 합 의)는 사실상 이북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말고는 미국 의 의무 사항은 이행되지 않고 있지만 계속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문제 해결과 조.미 관계 정상화 등 대화틀을 갖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백지 화시킬 수 있는 전쟁으로 유발될 북침전쟁연습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대화와 대결, 그것도 영구 평화구축논의와 북침전쟁연습은 결코 양 립될 수 없다.

또한 이번 한미합동군사연습은 6 · 15 공동선언과 10 · 4 선언 정신에도 분명히 어긋나고 있다. 6 · 15 공 동선언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하기로 했으며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을 강화하기로 했었다. 특히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을 위한 10 · 4 선언에서는 군사적 적대관계와 정전체 제의 종식을 합의했고 이 선언에 따른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조치,서해해상 충돌 방지, 평화 보장을 위한 실제 적 대책 강구,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군사책 상호협력, 남북교류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등 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남북 최고 수뇌의 약속과 국방장관 합의 를 깨며 외세의 군사 패권에 종속되어 동족을 적으로 하는 침략전쟁 연습을 벌이는 것은 온겨레가 염원하고 지향하는 평화와 통일로의 역사적 임무를 배신하는 행 위이다.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며 '한,미신 동맹' 강화를 말해왔다. 과연 전 정권 시대의 한미관계 는 적대관계였단말인가. 미국의 요구에 의한 평택미군 기지 확장,이라크 아프카니스탄 파병,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대폭 증가, 미군의 쓰레기탄 고가 인수, 한미 FTA 협정 등 더 무엇을 해야 한미 동맹이 복원된다는 것인가. 2007년 11월 7일에 채택된 제39차 한미안보 협의회의 (SCM) 공동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합의 사항 이 있다. ●테러와의 전쟁 협력 - 한미동맹강화, ●이북 의 대량살상무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확산의 한미 동맹에 도전으로 인식, ●주한미군주둔이 한반도, 동북 아 안전을 보장하고 미국은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 억제 등 모두 15개 항은 대부분 한미동맹 강화 내용이 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10년을 되찾 는다는 것인가.

평화와 통일은 우리민족이 선택할 최고의 가치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 방 법으로 이루어야 한다.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제해야 하며 동족을 적으로 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 다. 미국은 9 · 19 공동성명과 2 · 13 합의를 성실히 이 행해야 하고 제국주의적 군사패권주의와 대량살상무 기를 거두어 안고 제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20차 정기 총회

■일 시: 2008년 4월 26일(토) 늦은 3시 ■장 소: 종로5가 기독교회관

●●●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지를 통해서 자세 한광고 내겠습니다. ●●●

## "내가 이명박 때문에 잠이 안와요, 잠이..."

- 노(老) 통일신학자의 고통스러운 호소를 이명박은 아는가 -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팀

는 2월 권오 현 선생님과 함께 박순경 선생 님 집을 찾았습니 다. 오늘은 박순경 선생님과 권오헌 선생님의 아주 특 별한 대담을 여러 분께 소개하자고 합니다. 현장에 못 오셨던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생생

하게 전달할까 합니다.

박순경 선생님. 평생을 신학자로, 통일신학을 개척하면서 살아오신 기독교계의 석학. 1986-90년 한국여성신학회 초대회장, 이화여대 역사신학 교수로 정년퇴직(명예교수), 목원대 대학원 초빙 교수, '통일 신학의미래' '통일신학의 여정' '통일신학의 고통과 승리'의저자.

69세의 나이에 범민런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일본 동경에서 '기독교와 민족통일의 전망'이라는 강연을 한 것으로 구속돼 옥고를 치른 노 통일운동가. 존경받 는 신학이론의 정립자일 뿐 아니라 이를 삶의 현장에 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가장 성실한 신학자.

이처럼 박순경 선생님은 저명한 신학자로서, 행동하는 통일운동가로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 선생님을 뵙게 되다니... 필자로서도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1923년 경기도 여주에서 출생해 현재 86세의 연세셨지만 여전히 정정

한 기품을 잃지 않고 계셨습니다. 조 국과 민족, 민중의 앞날에 대해 끊임 없이 걱정하고 연 구하는 그 헌신적 품성도 여전하셨고요.

선생님께서는 최근 몸이 아파 집 에 주로 계신다고 했지만, 세상 돌아 가는 것은 훤히 꿰

차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의 '반통일 정책'에 분노하고,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또 새 정부 내각의 면면에 무척이나 실망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반 민중 성'에 대해서 일갈하셨습니다.

"내가이명박 때문에 잠이 안와요... 잠이... 어떻게 만들어놓은 평화와 통일의 진전인데, 어떻게 남주홍 같은 이를 통일부장관에 앉히려고 할 수 있나요? 그 자체가 반통일이고, 반민족이에요. 어찌나 분하고 걱정이되는지... 그래서 요즘엔 남쪽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하고 있어요. 예전엔 북쪽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남쪽이더 걱정이에요"

선생님과의 만남은 일상에, 다른 활동에 이산가족의 피맺힌 한도 잊어버리고, 삼팔선을 베고 눕겠다는 지난 날의 결의도 망각해버린, 조국과 민족의 통렬한 분단 고통도 때로는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저를 절로 숙연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순경 선생님은 현재 제자 김애영 선생님(한신대 신학과 교수)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김애영 선생님은 제자이면서 동시에 '동지' 로서 40여년을 함께 하고 계 셨습니다. 김애영 선생님은 '과거를 되살려 내는 사람 들과 더불어'라는 '원초(原草, 본디 풀) 박순경 박사 팔순 기념 문집' 제작도 주도하셨습니다. 제자이면서, 동지로, 그리고 박순경 선생님 평생의 기록자로서 역 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김애영 선생님의 환대도 저 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 다음은 권옥현 선생님과 박순경 선생님의 대 당전문입니다.함께 읽어보시죠.

- 권오헌: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전에는 밖에서 활동하면서 종종 만났었는데요.
- 박순경: 팔을 좀 다쳐서 집에서 주로 지내고 있는데 요. 요즘 이명박 때문에 한숨만 쉬고 살고 있어요. 나오 는 소식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슬픈 일이에요. 정말 말 이 아니에요.
- 권오헌: 안 그래도 저희도 오늘(2.28)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남주홍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 박: 예전엔 민족 전체를, 그리고 북쪽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요즘엔 그런데 남쪽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전에 남쪽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반공, 반북, 반통일 세력을 꺾어 달라는 기도였는데, 이 명박 정부 들어서니까, 정말 만만치 않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는 이명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발 반통일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동시에 이명박, 한나라당, 수구세력 들의 모든 반통일 획책들을 허물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남쪽에 통일운동이, 통일전선이 빨리 활성화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권오현: 정말 엉망입니다. 내각 면면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기용할 생각을 했을까요...

- 박순경: 저는 그 내각을 보면서 '범죄내각' 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명박은 상식도 없어요. 요새는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정말 나아 보여요. 그때는 아주 많이 비판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정부 때가 그래도 좋았어요. 또 김영삼 정부도 보면 우리가 더 욕 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금융실명제도 했고, 전-노 일 당구속도 시켰지요.
- 권오헌: 그런 부분은 김영삼 정부가 잘 했었지만 그 런데 민족문제 대북정책은 정말 잘 못했어요.
- 박순경: 맞아요.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엉망이 었죠. 황장엽씨 데려온 것도 큰 실수였고요.
- 권오헌: 그래도 이명박 정권이 예전처럼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의 거대한 물길이 있으니까요.
- 박순경: 맞아요. 지금 북에서 뉴욕필 공연까지 하고 있는데, '싱송외교'를 하고요. 그런 화해 흐름 속에서 이명박 정권이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화해 와 통일의 지체가 너무나 걱정돼서 속상하고 잠이 안 오는 것이죠.
- 권오헌: 선생님, 옛날을 돌이켜볼까요. 92년 범민련 활동으로 감옥가실 때가 69세인데, 70노구를 이끌고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어찌나 정정하고 쩌렁쩌렁했는지 아직도 그때 법정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판사, 검사, 청중들을 상대로 법정에서 강연을 하셨을 정도 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통일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신거죠?
- 박: 음 72년 7.4성명 때부터 였을 거에요. 그게 시발 점이에요. 통일이 우리민족의 과제라는 것은 45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72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죠. 제가 신학공부하면서,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제 처놓고 정말 신학만 공부했거든요. 워낙 할 게 많고 읽어야 할 게 많아서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보류했던 것을, 7.4 성명 발표되는 것 보면서 참 놀랬죠. 그리고 더이상 접어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72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74년에 유럽으로 가서 맑스주의 연구를 해 봐야겠다 했는데, 서적이 엄청나거든요. 68혁명

이 벌어진 이후였는데, 그때가 74년이라 그 열기가 좀 수그러들었어요. 그래도 그 68혁명의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중국의 모택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분단 문제, 이념 문제를 다루려면 맑스주의를 공부해야겠다 싶었던 것이죠. 정말 바빴지만, 하나 하나짚어가면서 공부했어요. 초기 맑스주의부터, 특히 기독교와 관련한 맑스주의 저작들에 대해서도 많이 읽었고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라는 점도 서서히 연구하기 시작했지요.

당시 남한의 기독교계 주류는 특히 반공, 반북 분위기 가지배적이었는데요. 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맑수주 의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연구가 활발했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그랬어요. 기독인들이 맑스주의로 들끓었 고, 사회주의와 기독교와의 관계를 탐구했던 것이죠. 신진 신학자들도 많이 심취해있어요. 우리나라는 러시 아 혁명을 거치면서 20년대부터 기독교가 반공으로 변 질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반공이 정통 기독교인 것처 럼 자리를 잡아갔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분단의 정신 적 기반이 되 버렸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반공반북 노 선은 반민족적일뿐만 아니라 반성서적입니다.

- 권오헌: 선생님, 구속되기 전에 일본 동경에서 강연하였던 '기독교와 민족통일의 전망' 내용을 보면 '통일신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소장에도 나오고요. 맑스주의 신학을 공부하다가 어떻게 '통일신학'으로 발전을 하시게 된 것인지요?
- 박순경: 74년부터 유럽에서 맑스주의를 공부하면 서, 제신학의 관심은 민족과 분단, 그리고 통일 문제였 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통일신학'이라고 정리한 것이죠. 신학의 주제를 민족과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삼았던 것이죠.
- 권오헌: 88년 교회여성연합회 통일위원을 역임하신 것도 그 연장선상에 일이셨네요.
- 박순경: 그렇죠. 76년 봄에 한국에 돌아와서부터 이 야기했어요. 독일에서도 강연을 했었는데, 한국의 신학 주제는 '민족과 통일이다' 라고 이야기 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강의를 시작해서 통일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도 나 혼자서라도 해야지 어떡하나, 그때는 어떤 신학자하고도 안통하 고 그랬어요. 그나마 반독재 민주화운동하는 분들 만 나고,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뒤에서 함께 하고. 이화 여대 교수들 서명할 때 이효재 교수하고 저하고 동참 하면서 등등, 그걸 하다가 운동권들을 만나게 됐죠. 그 전에는 운동권이라고는 몰랐는데, 그때부터 민주화운 동권에 관심을 확 쏟았는데... 그럼에도 저것들이 아직 도 반공이구나, 특히 기독교 민주세력들도 반공의 잔 재가 남아 있었어요. 물론 민주화운동의 재야세력에 는 통일지향세력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화운 동 물밑에서 통일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당시 학 생들은 NCC(교회협의회)를 주목했어요. 그때 일부 인사들을 시작해서 많은 인사들이 통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합일시켜나가고 있었는데, 대학생들은 안 그 러다가 6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통일운동을 확 띄우 더라고요. 그 즈음 저도 교회여성연합회 통일위원회 에 참여했던 것이죠.

- 권오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치하에서는 정말 뭘 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민청학련과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있었고. 인혁당 재건위 시건에서 1급수배를 받아온 이재문, 신향식 선생 등이 남민전을 준비했고. 그러면서 5.18 광주민주항쟁이 이었지요.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세력에 맞서 저항운동이 예전에 비해선 더 활성화되고 83년부터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학생운동도 아주 활성화 될 때에요. 바로 그 즈음 85년쯤에 선생님을 처음뵙게 됐던 것 같아요.
- 박: 그때는 제가 재야운동권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남민전을 보면서 이렇구나, 아 알았어요. 인혁당 사건 때 정말 분노하게 됐고요. 제가 제일 분노하고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인혁당 사건이었어요. 독일에 서 처음 소식을 들었었죠. 그래서 남민전 사건을 보면 서 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그러다 장기수 문제를 발견 하고. 기독교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기독인들이 장 기수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그때 쯤에 그랬고

요. 다시 전두환시절에 '삼민투' 를 보면서, 이게 내 사건이다, 통일과 관련 있다, 80년대는 내시대다, 통일의시대다, 이런 생각을 하며 연구도 활동도 병행했던 것이죠.

- 권오헌:지난 80년 광주미문화원 방화, 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 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으로 민족과 분단, 그리고 제국주의와 미국, 통일 문제 등이 우리사회에 전면화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광주항쟁을 계기로, 그것을 시발로 반제 민족자주운동, 통일운동의 불길이 솟아나게 됐죠.

- 박순경: 그게 통일신학의 맥락입니다. 남민전, 장기수 문제, 그리고 광주와 삼민투를 거치면서, 통일운동이 전개 돼고, 지하 운동도 활성화되고... 이게 통일신학의 중요한 영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어요. 70년대 말, 80년대초에 이때 이념문제뿐만 아니라 민족문제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해서항일민족운동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박차고 기쁜 공부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연구결과 발표를하기 시작했어요. 강연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반공, 반북을 통일신학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80년대는 직접 행동을 하게 된 시절이었죠. 당시에 조성우 선생이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지금은 사이가 예전같진 않지만(웃음), 조성우 선생이 당시 저와범민족대회를 연결시켜줬지요. 그때만 해도 아직도 운동권을 잘 모르던 시절이었거든요.

- 권오헌: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민족, 통일신학을 본격적으로 하셨고, 그것이 학문으로서 신학뿐만 아니라 80년대부터 '행동의 현장'에서 뵙게 된 인연을 만들게 된 셈이네요. 제가 남민전 사건으로 들어갔다 83년 초에 감옥에서 나와서 문익환 목사님, 김승훈 신부님과 함께 문 목사님은 82년 12월월 출소하셨고요. 그러면서 고난받는 어른을위한 갈릴리 교회, 기독교회관등에서 남민권 동지들을 비롯한 양심수 석방운동을 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 석방운동을 했어요. 83년 그때부터는 학생들도 감옥에 많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당시 민주화운동의 핵심에는 구속자 석방 운동이 있었 어요. 그 힘으로 민추협, 민가협 등이 생겨났죠. 그런 역사가 민통련, 전민련을 거쳐 80년대 후반 범민족대회와 범민련으로도 이어졌고요.

- 박순경 : 맞습니다. 90년도에 전민련이 범민족대회 를 제안했었죠. 또 91년에 노태우가 7.7선언을 하면서 범민족대회도 허락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 체들이 이제 범민족대회에 엄청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임진각에도 갔다 오고. 당시 이창복. 조성우. 신창균. 김 희선 선생 등등과 함께 일하고 있었죠. 당시 범민련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한 사람이, 홍근수, 박순경, 신창균, 김희선 등이었고요. 특히, 전 남북해외 범민련이 필요 하다고 88년부터 주장해왔었어요. 그런데 통일운동 내 부에서도 범민련을 받아들이면 남한에서 통일운동하 기 쉽지 않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당시 전민련 지도부 는 그런 편이었지요. 나중에 계속 토론을 해봐도 결론 이 안 났어요. 그런데 마침 조용술 목사, 이해학 목사, 조성우 선생이 해외에 나갈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 습적으로 베를린에서 모였고, 거기서 범민련 결성 선 언을 했어요. 그래서 91년 1월에 범민련 조직을 한다 고 다 모여서 조직을 했는데, 준비위원장에 문익환 목 사님, 부위원장에 저랑, 계훈제 선생님 등 5명이 있었 어요. 그런데 그 이튿 날. 실무자들이 다 잡혀갔어요. 이 창복,조성우, 권형택, 김희택 선생 등이 그들이었죠. 범 민련 남측준비위 조직을 해야 하는데 조직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숨어서 몰래 몰래 대학에 가 서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범민련 남측준비 위원회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두 천사와 함께 한 면회기

- 원주 변외성씨 면회기 -

송지영 | 양심수후원회사무국



어를 한 시에 두아이를 태우기로 했다는 숭실대 입구 라 역에 내리니 먼저 도착한 성용형의 노란 차가 보 인다. 형과 인사하고 가는 동안 뭐 먹을 것을 좀 준비하 기로 했다. 그러느라 시간은 열한 시를 넘었다. 아이들 의 엄마와 세 번쯤 통화하고 나서 열한 시 반쯤 생글거 리며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한 초등학교 5~6학년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를 앞세우고, 숫기 없는 표정으로 인

사하는 중학생 또래의 아이가 나타났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한 아이들은 한국노총 항 의방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는 변외성씨의 둘째와 셋 째다. 처음 면회를 미영언니와 성용형과 다녀오고, 생 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인 유수남씨를 내가 취재했다. 그러는 와중에 영등포에서 원주로 이감되어 아이들과 면회 다니기가 쉽지 않다는 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들 었던 성용형이 부인과 세 아이들을 데리고 면회를 다 녀왔다. 그 인연이 이어져 아이들 방학 중에 아이들만 데리고 한번더 가기로 한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난 연말사면에서 6개월 정도 감형된 변외성씨는 6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앞으로 또 인연이 이어진다면 다음 여름방학 때도 한 번 더 같이 갈수 있으리라. 아이들에게 왜 이리 늦었냐고 하니 동생 아영이가 오빠 호석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주물러주다 늦었 다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 호석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웃음을 웃고. 엄마에게 오늘 일을 전해 들은 아 영이가 "나 아줌마랑은 안가!"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내가 "아줌마랑 안 간다고 했다며? 내가 누군지는 알고? 게다가 나 안가면 너희 점심 굶는데......" 하며 친 한 척을 하기 시작했다.

조금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다가 차가 막혀 피곤하면 좀 자라고 했더니 뒷자리에서 서로 머리에 머리를 기대고 곧 잠들어 버린다. 밝고 맑은 아이들이란 생각이들었다. 그렇게 자고 가면 목 아프다고 호석이를 깨워한 자리씩 길게 누워 자라고 하니 아영이를 눕혀 놓고 운전석 뒷자리로 와 또래치고 큰 키라 구부정하게 다리를 굽히고 곧 다시 잠 속에 빠져든다. 옷을 덮어주니평일인데도 막히는 고속도로를 빠져 나와 원주시에 도착할 때까지 깨는 일 없이 잘 잔다.

생각보다 좀 늦게 도착하니 원주교도소는 썰렁하다. 내려서 걸어가는 동안 아영이는 내 옆에 착 붙어 있다.' 점심' 무기가 먹혔다. 아이다운 천진함으로 성큼 사람 에게 다가오는 귀여운 아이다. 아이들이 왔으니 장소 이동접견을 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다음 주에 예정된 가족 외박 면회가 있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면회 소에서 기다리는 동안도 내 옆에 붙어 앉아 있는 아영 이에게 성용형이 짓궂은 농담을 건넨다. 그렇게 어울 리지 않는 장소에서 아이들은 밝기만 한 모습으로 몇 십 분 창살 너머로 만날 아빠를 기다린다.

다른 때보다 오래 기다린 듯 해 아이들도 왔으니 시간 더 달란 말품을 팔고 변외성씨를 만나러 간다. 나는지난 6월 말 경에 한 번 봤을 뿐인데도 반가운 인사를건네신다. 인사하라고 마이크를 대주니 호석이가 장남답게 "옷이 바뀌셨네요?" 하자 "감기가 걸려서 따듯한

옷을 입었다."고 하시니 "그게 그 안에서 제일 따듯한 옷이예요?"하며 걱정스런 얼굴이 된다. 아이들과 짧은 인사 후에 민노당 돌아가는 이야기며, 일심회 사건 관 련자들의 이감과 개인적인 소통을 통한 당부, 공부를 위해 새 책을 구해야 한다는 당부 등 동지로서의 열정 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신다.

두 시간이 넘어 도착한 아이들이 혹시라도 할 얘기가 없는지 시간을 보며 또 재촉한다. 호석이가 다음 주에 있을 일박 면회 시간이 이동시간을 포함한 것인지 문고, 누군가가 옆에 계속 있는지 돌려 물으며 오랜만에 다섯 가족이 모이는 날에 관한 기대를 내비친다.

그렇게 이십 여 분의 짧지만 긴 면회는 마쳤다. 도착이 늦어 먹지 못한 점심을 원주를 벗어나기 전에 먹으러 들어간다. 약속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집에들어갔다. 네 명이니 일단 4인분을 시키고 삼겹살을 못먹는 내가 시킨 냉모밀국수, 냉면 세 그릇, 된장찌개와밥한 그릇, 버섯 모듬 두 접시가한 시간도 안되서바닥이 났다. 모두들 배가 고팠다고는 하나 막내가 전 날배탈이 나서 삼겹살 한 조각을 먹은 것을 생각하면이날 일행 중두 남자의 대단한 먹성이었다.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보니 옆 가게가 이름다운 가게였다. 결코 풍족하지도 않은데다가 아빠마저 떨어 져 있음에도 밝음과 건강함을 지닌 아이들을 만난 기 념으로 들어가서 옷 사준다고 큰 소리를 친다. 아름다 운 가게를 가본 사람은 알것이다. 가격을 믿고큰 소리 칠만하다는 것을. 옷 고르는 동안 호석이는 사춘기로 접어드는 친구답게 스타일을 중시하며 옷을 고르고, 막내는 제 옷을 다 고르고는 악세서리를 보며 대학에 입학한 언니에게 사줄만한 것을 고르는 다감함을 보인다. 생색은 내가내고 계산은 성용 형이 한다.

돌아오는 길은 막히지도 않았지만 오는 내내 차 안 에서 이어지는 끝말잇기 놀이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에 도착한다. 다섯 시나 되어 아이들과 출발한 곳에 도 착하며 성용형이 집 앞까지 간다고 하자 아영이가 되 묻는다. "언덕까지 올라가 주실거예요?" 차가 올라가기 어렵지는 않지만 도로에서 보이지 않을 법한 곳에 이 르자 매일 지나다니는 그 길 안쪽에 그런 곳이 있으라 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 드러난다. 집이 있었으 리라 추측되는 자리들이 흉물스럽게 보이는 흙색이나 집의 잔재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언덕배기 위로 또 가 파른 층계 위에 몇 채의 집이 남았고, 붉은 글씨의 현수 막들이 붙어 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몇 안되는 서울 도 심의 철거지역이다. 그 층계를 올라가면 된다는 아이 들과 아쉬운 인사를 한다. 5월이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올 것 같다는 아빠와 함께 다시 보길 기원하며, 여름방 학 때 다시 함께 원주에 갈일 없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 하며.

자신이 옳은 일이라고 믿고 행한 일로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아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다는 것은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 장기수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북영화 상영회(116회)

- ■일 시: **2008년 4월 8일 (화) 늦은 6人** ■장 소: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광회문 우체국 6층)
- ■작 품명: 지지않는 노을(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5년제작, 101분 상영)
- ■줄 거 리 : ••김홍익 단편소설 이니라 녀인들에 기초한 작품이다 일제강점기이학교교사 수련과학생인이벽이어법에 맞지않는 예문을 말한 것과 '망치'를 수업내용에 계속관련시킨행동에 대해 지적을 하는 등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오해가쌓는다. 625전쟁이니자 이벽은 전쟁터에 간다고 전보용지에 써서 전하지만 수련의 반응은 냉랭하다. 종전 후죽은 줄로 알았던 이벽이 상이군인이되어 돌아절망을 극복하고 이벽의 망치에 대한 일화로 수련은 이벽에게 달려가 망치를 전하며 앞날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전한다.
- ※문의\_ 한천욱(016-235-5631) \* 관람료는 무료입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이진강 님의 편지

권오헌 회장님, 그리고 후원회 동지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이 진강입니다.

작금의 시기, 진보운동진영에 안팎의 시련이 깊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민중운동의 앞날을 개척해 나갈큰 원칙과 전망을 세우기 위해분투해야 할 시점에 진보운동진영의 일각에서 그 대오가 흐트러지고 있음에 안타까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변화를 요구받을 때 원칙 속에서 혁신을 구했고, 고난이 닥칠수록동지적 신뢰와 의리로 헤쳐나갔던 민중운동의 전통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회장님과 후원회와 같은 뿌리깊은 운동의 정신이 더욱 절실해 집니다.

저는이곳 안동교도소로 옮겨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덕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 안동에는 심진보, 정창윤 두분의 동지들이 계시는데 작년 격렬했던 소내 투쟁의 여파로 두분 동지들과 저를 분리 시켜 놓으려는 교도소측의 방침이 확고한듯 합니다. 그래서 아직 두분 동지들을 만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국가보안법 공안수 한분이 더 계십니다. 윤경석 이라는 분인데 무기수입니다.

저도이곳에서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분이지요. 2005년에 국보법으로 구속 수감되었고, 평양에 집과 가족이 있고 남한 땅에는 아무 연고가 없어 홀로 고립, 격리된 채 기약없는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양심수후원회 소식지와 민족21을 드렸더니 이런게 다 있었느냐며 무척이나즐거워 하셨습니다. 그 간 완전한 고립상태에 처해 있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소식지 등은 계속받아 볼 수 있기를 기대 하셨습니다. 양심수 후원회는 분단과 이념의 장벽을 들이대는 곳이 아니니 알려드리면 관심을 가지실 것이 고 소식지 등을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사건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나 어찌되었는 분단체제의 희생물로써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아무 연고자 없는 무기수입니다.

회장님과동지 여러분의 애정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든 동지들의 건투를 빕니다.

(PS, 윤경석님의 수번은 3001번입니다).

- '08.2.21 안동에서 이 진강 올림

### 박종기 님의 편지

양심수 후원회원님과 양심수 동지들게

연일 동장군이 몸과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더니 유일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분란에 휩싸여 중대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하여, 도대체 왜 무엇이 잘못되어 이렇게 되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진단 구주장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념 갈등이니 의석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제하 훌륭한 독립투사들은 목숨을 걸고 운동을 했지만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사상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상은 커녕 제대로 된 교양도 쌓을 여유도 안목도 없었습니다. 바로 "무지"가 분열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것을 백범일지만 숙독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진보계는 교양은 깊어졌다고 칩시다. 누가 제대로 된 이념학습을 할 계기가 있었습니까? 민주화가되어 세계사상을 접할 때쯤 사상의 조국은 무너졌고 이 땅에도 맥은 끊기고 맙니다. 그런데 무슨 이념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현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초래된 것입니다. 신당파들이 내세우는 구호는 생태 · 여성 · 소수자 등입니다. ~아니 자주파가 언제 반생태 · 반여성주의를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이들에겐 통일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놀랍게도 처음부터 통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분당의 결정

적 이유라는 생각입니다. - 통일이 사라졌다는 것은 진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 그런데 통일이라는 말에도 이해가 엇갈립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임기 내내 '통일'을 말하지 않았고 2차 남북회담에서도 통일얘기는 한마디도 안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진보내의 평등파에도 영향을 미쳐, 통일에 반대한다고는 감히 못하고 노무현처럼 통일담론을 차단함으로써 통일무망론, 북필론을 유포했습니다. 극 우들이나 쓸 수 있는 종북주의를 무기삼아 만천하에 반통일성을 증명했습니다. 문익환선생님은 '89년 김일성과 회담하고 "통일은 다됐어"라는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언명을 남겼습니다. 통일 물꼬를 트는 것이 얼마나어려웠고 중대한 것인가를 잘 말해 준 것으로 이후 통일시대를 열게 했고 누구나 통일을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등파는 이제 통일을 말도 하지 말자 합니다. 말도 안되는 종북주의 청산이란 이름으로 …… 하늘이 놀랄 일입니다. 통일·자주라는 대의와 사명을 위해 헌신·희생한 수많은 열사 앞에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멀다해도 더 간절히 말하고 노력해야지 8천만 민족의 명운이 달린 것을 어찌 도외시 한단 말입니까! 독일은 통일한 지 20년이 다 되지만 아직 완전한 통합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일은 끝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다까!

그렇기에 '통일'이라는 말은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시대와 통일순간, 통일 이후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해서 쓰는 것으로 합의해야겠고, 모든 진보세력은 더 열린 자세로 정세와 현실을 놓고 진지하게 고뇌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혼하는 것이아난 별거할 뿐"이라는 것을 되새기며 역사에 빛나는 임시정부도 8년만에 존망의 위기에 처했었다는 사실을 위안삼아 모두 함께 다시 전집합시다. 아자!

- 나는 노동자로 평등신봉자니 평등파가 아닐 수 없고 통일에도 관여했으므로 자주파입니다. 어찌 자주없는 평등이 가능하며 평등없는 자주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 서로 잘 융합하지 못한 것을 깊이 성찰하면서…… 다시 또다시 …… 잘 ……

- 후원회 회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전국의 양심수 동지들! 건투를 빕니다.

- 2008.2.22 전주에서 민주노동당 당원 박종기 올림

장영희 님의 편지 **> --**

민가협 후원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달 195호 소식지를 받고 바로 인사드리려던 것이 차일피일 196호 소식지를 받고서 이제야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양심수 석방을 위해 많은 활동과 소식을 전해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철거민 연합 중앙에서 연대 사업을 담당했던 장영희입니다.

지난07년 11월 말 광명6지구 재건축지역 강제 철거가 있었습니다. 철거과정에 경찰의 엄호하에 재건축 조합의 사주로 철거깡패들이 철거민 주거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해 각괴목을 휘두르며 폭력을 자행하였습 니다. 많은 철거민들이 일어서지 못할 부상을 당하였고, 실신했습니다. 민중의 지평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 중들을 철거민들을 때려잡는 경찰서에 항의방문이 있었는데 폭력을 휘두르는 깡패들은 하나도 연행하지 않고 억울한 철거만들을 연행하고 구속하며 계속적으로 소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번의 실질심사를 거쳐 수원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귀에 걸면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자본 가 정권의 법의 논리 하에 대책 없는 개발사업이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디 철거만들만이 그러겠습니까!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의 논리가 그렇고 비정규직 확산과 인권을 짖밟는 법들이 속속 말도 안되게 준비 되거나 통과되고 있습니다. 비리 속에 극대이윤 창출을 위한 자본가 정권의 악랄한 마수에서 살아남기 위 해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 철거민들이 총단결 투쟁으로 만이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리 정권임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당선이 되었습니다.

축소은폐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드러내놓고 탄압을 자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해 한나라당 각 지자체 장들은 철거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고 집회가 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입맛에 맞는 투기 개발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며 자본의 하수인이 된 정권에 맞서 지치지 않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더욱 힘겨워질 우리의 투쟁이 빛나게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 억울하게 죽어나가고 구속되는 열사와 양심수가 없는 그날을 위해 노동자 민중 만세를 위해 투쟁!!

후원회 어르신들 수고하십시오

- 2008. 2.21 수원 구치소에서 장영희

٦١ ----

### 김형근 님의 편지

권오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통일교육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형근교사입니다.

얼마 전 '후원회소식 196' 호를 받았고 이번에 '민족21' 이라는 잡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투쟁의 현장뿐 아니라 이렇게 강도를 만나 다치고 쓰러지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소식지에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이정훈동지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같은 교도소이지만 미결과 기결의 차이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 권회장님께서 다음 번 면회하실 때 전해주십사하고 먼저 몇 자 적습니다. 0.7평짜리 독방이 소리없는 공간고문이며 반인권적 야만적 보복행형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전주교도소에 세 번이나 들어와 (1986,1995, 2008)독방에 갇히곤 하였는데 달라진 것이라고는 뺑끼통이 수세식으로 바뀐 것 외에 그대로인데도 문제를 제기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 젊으신 이동지가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시니 저도 여기에 가능한 동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권회장님께서 면회를 가실 적에 미결사동도 30년 전에 지어진 똑같은 규격 똑같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려주십시오. 저는 이동지가 하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동지' 라는 말에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이정훈동지와 같은 처지의 공통성으로 인해 쉽게 동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전주교도소에 장기수분들 이 많이 계셨습니다

몇 십년 씩 이 좁은 뒤주같은 공간에서 조국통일을 뜨겁게 염원하며 혹독한 세월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며 답답해서 터져버릴 것 같은 가슴을 억누르곤 하였습니다. 이번에 들어와서도 저 간약한 반통일 세력의 음모에 대한 분노와 조국통일의 과정에 민족을 위해 희생을 치루신 열사 선배어른들 그리고 동지들에 대한 피끓는 단심으로 견뎌내고 있었을 뿐 이정훈동지처럼 문제를 개선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젊은 이정훈동지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권오헌 회장님

저의사건은 아주단순한 듯 보이지만(또는 저들의 실수인 듯) 따져보면 저들의 음흉한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검찰에서 문제삼은 내용은 가장 큰 부분이 '통일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전교조 통일위 공식 활동은 물론 저의 수업행위, 시험지, 카페교육까지 저의 교육활동 전반을 걸고넘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제가 '6.15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학생들을 교육한 것이 북의 통일전선부의 적화전술에 따른 것이라고 왜곡했

습니다. 심지어 제가 발표한 몇 몇 글들을 놓고 저를 '주체사상가'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어이없이 시국변화기에 다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안세력들에 의해 '6.15공동선언' 을 뒤로 물리려는 의도가 있고 통일교육을 워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려는 반통일세력의 음모가 게재숨어 있습니다.

이북이 내부의 적으로 될 수 없는 6.15시대에 무슨 꽁수를 부려서 통일로 전진하는 우리민족의 기관차에 제동을 걸겠다고 하는 것은 당랑거철처럼 무모한 짓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런 방해꾼들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한 치의 물러섬없이 싸워 조국통일을 확정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권오헌 회장님

제가작성한 글(심지어 교육청 제출자료도 있음)들을 한 번 보시고 그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통일시대에 범죄로 회칠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혐의 글들은 전교조 전북지부에 요청하면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 저들 반만족집 단의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겠습니다

또 저의 주된 범죄사실이라는것이 2005년 회문산에 있었던 '남녘애국열사 추모제'전이제 문회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권선생님께서도새벽에 학생들과 함께 등산하셨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그때 학생들이 나무에 매단리본 '우리족끼리 통일하자'는 내용의 리본이 저의 범죄증거물입니다 이 행시를 검찰에서는 시종 장기수어른들과 연계라고 이야기하며 지령어쩌구 하는 조시를 했습니다.

권회장님! 이건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장기수어른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통일을 바랬다는 이유 하나로 몇 십 년씩관속같은 방에서 형기를 살게 하였던 야만적인 분단체제의 희생자들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또 범죄로 연관시켜놓은 일이 어느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날추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전날 문화행사에 잠깐 참여했을 뿐이지만 설령 추모제에 참석 했다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미국에서조차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동 희생자들 추모식에서 살인자 였던 조승희의 촛불도 같이 켜 놓고 전교생이 추모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예우는 인류 보편적인 양심과 권리입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는 제네바협정도 있지 않습니까? 회문산의 일은 이미 반백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삼아 여론몰이를 하고 기어이 저를 구속까지 시킨 것을 보면 이 것은 그냥 스쳐갈 문제가 아닙니다. 야만과 정의의 싸움으로 수놓아진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부분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권오헌 회장님

학생들이 애꿉처럼 만든 스티커(일일이성운동) 기억하시는지요?

그스타커로 반미의식 국보법 철폐의식으로 더욱 내면화시켜 학생들을 전위로 양성하려했다는 것이 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대체 전위가 무엇인지를 알고나 거기에 붙여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서 범죄를 만든것을 보면 저들의 도발입니다. 저들이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하였다면 그것은 역으로 가장 약한고리가 될수가 있습니다.

권오헌 회장님! 관촌중 스티커를 그대로 다시 제작해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으로 배포해주십시오, 이것이어떻게 범죄로 될 수 있는지?

이것을 막겠다면 6.15를 막겠다는 이야기라고 전하면서 말입니다 이 역시 전교조 전북지부에 문의하시면 샘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의 영치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시작된 이명박 정권에서의 통일과 반통일의 싸움은 우리는 확실하게 이겨나갈 것입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후원회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교도소에 계시는 양심수동지 여러분들의 건투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2008년 2월 26일 전주교도소에서 김형근올림

### 장민호 님의 편지

민기협 양심수후원회의 권오헌 회장님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 및 전국의 양심수 동지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국가보안법위반혐의(이른바'일심회)로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장민호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통하여 송현아씨의 구속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당국의 광기가 신혼여행을 앞둔신부를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중주체 민족자주의 길을 막아서려는 수구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높이 들수록 7천만 전 조선민 중은 반미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재춘 송현아동지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2월 후원회소식지에 실린 이정훈 동지의 제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저의경우 외국인 사동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역시 0.75평정도의 공간에 난방이 안되는 독방입니다. 같은 사동에는 주로 중국공민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일부 몽고 아프리카 러시아출신 수감자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들중 상당수는 0.75평 정도의 독방에 2명이 수감되어 있는 바 저의 경우 홀로 독방을 쓰는 것을 감사히(?)여겨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교도관들의 저급한 인권의식 및 삐뚤어진 민족적 인종적 편견에 의하여 외국인 재소자들에 대한 반말사용 등 부당한 대우가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운동시간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내법규와 함께 피구금자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기본방향을 대한민국의 전사회부문을 이른바 '국제화시대의 기준'에 준하여 바꾸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한미동맹과 FTA를 근간으로 하여 미국적 기준에 준하는 그 무엇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특히 최근수년에 걸쳐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구실로 보여준 심각한 인권유린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새 정부의 이러한 생각과 의지는 대한민국 인권의 심각한 후퇴요 재앙으로 될 것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미국적기준'이 아닌 진정으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준하는 인권확보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외치는 국가적 비젼 성취를 인한 분투 속에서 이렇듯 천박한 인권의식과 삐뚤어진 민족적 인종적 편견이 불식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동북아시아의 하류 제국—파쇼국가로 전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원회소식지에 관련글들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정훈동지! 건강하시고 분투바랍니다.

더불어 아직 개인서신을 나누지 못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동지들께도 지면을 빌어 안부 인사드립니다. 특히 최기영동지의 경우 같은 교도소에 수감됨으로인하여서신교환마저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을 동지들의 건강과 건투를 빌며이만 줄입니다.

- 2008 3.6대전교도소에서 장민호올림

## 작은 행복의 조각보를 잇는 현명한 회원

- 고제헌님을 만나고 -

송지영 | 양심수후원회사무국

나 성대에 이른 봄부터 와서 처음으로 추운 겨울을 맞았다. 눈이 오는 날은 마당에 쌓인 흰 눈과 잎을 떨구고 외롭던 가지가 눈을 덮고 있는 따스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겨울이면 낡은 집이라 문이란 문은 꼭 닫아야 한다. 간혹 혼자 있는 아침, 부엌에 잠시 가 있어야 될경우 전화를 받기 위해 문을 열어 두어야 하는 것은 곤혹스럽기까지 하다. 이월 중순의 어느날 아침에도 그랬다. 열린 문틈으로 끼어든 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들었더니 차분한 저음

의 여성 회원이 이사를 가신다고 소식지를 그 쪽으로 보내 달라한다. 요새는 전화가 오면 회원 관리 차원에 서 홈페이지에 관한 의견을 묻거나 주소지를 듣고 산 행에 오시라 하거나 행사에 한 번 오시라는 하는 것이 일이다. 고제헌님의 전화에도 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 가시는 주소지가 강화도다. 인사 가기 전에는 아 이가 어려서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거리 가 멀어 어쩌냐는 답이 돌아온다.

마침 오신 회장님께서 책상 위의 메모지를 보시고는 이번 호 '이런 회원' 으로 취재하면 좋겠다 하신다. 꼬박 꼬박 회비를 내시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을 만나 감사 를 드리고 활동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게다가 강화도로의 취재라니 덤까지 얻었다.

주소지 하나 달랑 들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푸근 해진 금요일에 신촌 터미널에서 강화로 가는 버스를 탔다. 알려주신 대로 화도면 문산리 정미소 앞에서 전



화를 드렸다. "그 앞에 길 보이시죠? 그 길 따라 쭉 올라오면 오른쪽에 소 키우는 집 있어요. 제가 앞으로 나갈께요!" 한다. '소라니, 흠 귀농하신 건가보 군……' 사전에 아무 정보도 없으니 상상의 나래를 펼쳐 질문을 생각하며 이분 쯤 걸었을까! 시골집들 사이로 축사가 보이고 자그마한 소년 같은 외모의회원님이 걸어 나오는 것이 멀리 보인다. "소 기르러 오셨어요?"라니까 "그랬음 좋게요!한 마리에 800만 원이예요. 주인집에서 기르시는 거여요."

라며 미소를 띄며 축사 뒤의 아담한 별채 양옥으로 안 내한다.

뜻한 바가 있어 특수교육을 전공했다. 이대 특수교육학과 89학번으로 93년 졸업후 장애인을 위한 단체인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에서 잡지를 만들었고, 거기서 4년 정도 일하다가 결혼후 생활고를 비관(?)하여복지관에서 일하며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시험을 봤다. 특수학교에서 장애인('장애우'라고 칭하는 것에 같은일을 하는 남편도 회원님도 반대하신다. 이미 그 명칭안에 '친구'를 강조함으로써 일반인과의 차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란다.)을 가르친지 8년 정도 된숙련된 특수교사다.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체구가 작고 여린 외모라서 힘들지 않은지 물었다. 우문현답이 돌아온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 아이들은 지능적인 문제를 일으키고그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 생각하거

든요. 단지 몸이 좀 힘들다는 것,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 아이 중심으로 미루어 짐작해야 하고 처치해야 하는데, 처치에 대한 확신을 줄 피드백이 없는 것이 조금 어려울 뿐이에요."

단체 활동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잘생긴 두 아들 — 김한결(초등학교 3학년 진학예정), 김한솔(초등학교 입학 예정)—을 두었다. 원래 군산이 고향인 회원님은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트인 곳에서 흙 내음을 맡으며 자라게 하고 싶었지만, 서울 토박이인 남편은 서울을 떠나면 못 사는 줄 아는 사람이었다다.

재작년 가을 귀농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시골 로 가자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남편 직장이 서울이라 경기도 인근을 찾았는데 여기저기 개발이 돼서 시골 같은 곳이 없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 군사분계선이 남아 있는 강화도는 통일되기 전에는 개발이 안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시골스런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것 같 아 반강제로 세 남자를 모시고 내려왔다.

군산에서 자랄 때 대추나무에 매인 그네에서 그네를 타고, 산소에서 미끄럼 탔던 그런 기억들을 아이들에 게도 주고 싶었다. 아이들을 너무 휘몰아치는 서울에 서 탈피한 지 일주일 여, 아이들도 회원님도 만족하고 있다. 이사와 귀농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웃과 잘 지내 기 위해 떡도 돌리고 친분을 쌓을 때, 휴지를 사들고 방 문하신 이웃 노부부와 앉아서 얘기하는 남편도 잘 적 응하는 것 같다.

강화의 특수학급으로 발령받기 위해 별거부부처럼 주소지를 먼저 옮기고, 사전에 강화의 특수학급 교사들의 전근을 알아보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마쳤다. 아이들이 다닐 학교로 함께 시골길을 걸으며 풀, 나무, 꽃구경을 하며 20분 정도걸어 출퇴근할 꿈에 부풀었었다. 하지만 도서지역이라 특수학급이 교사의 승진점수에 미치는 영향 덕분에 경쟁이 치열해서 이번엔 발령이 인천으로 났다. 덤프트럭들이 오가는 길을 운전해서 50분 거리를 출퇴근하게 되었다. 남들은 오길꺼린다는 강화로 전근 올 수 없을지 몰랐기에 실망이크다. 게다가 일 년 후를 다시 보게 되면 이제 나가게

될 학교에서의 운신의 폭도 걱정이다. 일 년 동안 정을 주기도 그렇다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생활을 하기 도. 그래도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약속이 먼 저라며 또 웃는다.

학교 다닐 때 까마득한 선배였던 송록희님(86학번) 께서 간사로 계실 때, 학교에 장기수선생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한 적이 있다. 그 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송선배의 권유로 양심수후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한 일이 없어요~! 열심히 편지 쓴것 밖에."

그 때 인연을 맺은 선생님이 당시 북광주 교도소에 계시다가 99년 출소 후 송환되신 김동기선생님이다. 93년 졸업할 때 가입하고 이어진 인연은 선생님이 송환되어 가실 때까지 줄곧 이어졌다. 편지들을 주섬주섬 챙겨 나와 펼쳐 보고 보여주는 회원님의 눈은 이미그 때를 쫓고 있었다. 오래 돼서 기억도 가물가물 하다하면서도 옥중에서 결혼선물로 보내오신 그림을 액자에 고이 넣어 거실 한 벽에 걸어두었다. 마음속에 고이접어 두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단체 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그릴 때마다 선생님께 투정 비슷하게 편지를 써 보내면 사상적인 견지를 잃지 않으시던 선생님께서는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다. 회원님의 허락을 얻고 읽은 몇 통의 편지 속 곳곳에 선생님의 지혜와 회원님에 대한 애정이배어있었다. "세상일은 중용과 조화의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인 것 같다. 최근 화단에 쑥갓, 상추, 케일씨를 파종했다. 이 단조로운 생활에 농부의 꿈을 가꾸어 보려한다." 95년 3월 29일에 받은 편지 속한 구절이다.

면회가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이라 실제 뵌 것은 출소 두어 번과 송화되실 때 서울에서 전부였다. 하지만 오래되어 빛바렌 편지들 속에 묻어 있는 선생님에 대한 기억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였다. 그런 소중한 기억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맞벌이를 하다 보니 회비만 꼬박꼬박 내는 회원이 되어 있고, 관심의 끈이 느슨해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양심수후원회의 회원으로서의 다짐을 물었다. "회비만 내는 회원에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2008년이 되겠습니다. 총회에도 참석하고 모임이나 행사에도 참석

하겠습니다." 라는 다소 유도된 대답을 듣기 위해서.

가족사진 속의 회원님은 실제 뵈는 것보다 둥글둥글 살집이 좀 있어 보여 다이어트를 하셨냐고 물었다. 녹 색연합에서 하는 단식프로그램 '비움의 잔치'를 재작 년부터 가보고 싶어 벼르다, 몸도 마음도 비우고 한 해 묵은 찌꺼기를 비우자는 의미가 마음에 들어서 결국 작년 연말 일주일 참석했다. 하지만 단지 이유는 그 뿐 이 아니었다.

면역관련 희귀질환 진단을 지난 여름방학에 받았다. 폐에 기포가 생기는 병으로 증상이 심해지면 숨이 차고 죽을 수도 있다는 병인데 다행히 초기 발견했다. 대 상포진을 앓고 난 일년 후까지 아프고 힘들었을 때 마침 결핵차가 학교로 와서 제일 먼저 검사를 했더니 의사결핵이란 진단이 나왔다. 보건소에서 다시 정확히 검사를 하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는데 결핵은 아니지만 폐 사진이 이상하다며 삼 개월 후 다시 엑스레이를 찍자고 해서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갔더니 사진은 똑같은데 이상하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했다. 결

국 서울대학교 병원 방사선과로 가서 CT를 찍고 발견했다. 대학원 일 년 반 다녔지만, 몸이 안 좋아서 마치지 못했다. 안희숙선생님을 뵈었을 때 폐에는 해풍이좋다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며칠 전에 나도 들었어요, 정말 이사 잘 온 것 같아요!"란다.

처음 만난 날 "그럼, 언니 계속 그 약 먹으면 이 집엔 남자만 넷 사는 거예요?"라는 당돌한 농담에도 "그렇지! 수염 날까봐 걱정이야!"라며 맑은 웃음과 농담으로 받아 주시는 회원님은 욕심 없이 가진 것을 지키고 더 큰 행복으로 만들어 기는 분이었다. 마치 정채봉님의 동화 '조각보 같은 행복' 속의 주인공소녀처럼 스치는 작은 행복들을 모아 큰 행복을 만들고 타인에게 그 비법을 전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었다. 남과 다름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회원님께 병마 따위는 조금의 불편함 정도일 거라 믿으며 쾌유를 빌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행사 때마다 자리를 꽉 채워줄 고제헌회원님을 만나길 기대하며 짧은 외출의 기억을 마무리한다.



#### 郑北卫



가벼운 봄기운 속에 이런 진지함을 한 번 느껴보시 도록 권해드립니다 구속노동자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양심 수후 원회와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양심 수후 원단체에 보내온 옥중편지를 묶어 서한집을 발간하였 습니다. 감옥에서 도여전히 강고한 투쟁의 연속선상 에서한 발자욱도 물러나지 않는 옥중 양심 수들의진 보적인 내면과

특히 진한 동지애를 이 서한집을 통하여 느낄 수있습니다. 다소 무거운 가격이지만 책을 펼쳤을 때 그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격은 회원가 15,000원에 원하는 장소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문 의: 후원회 874-4063. HP 01 0-4563-0559(임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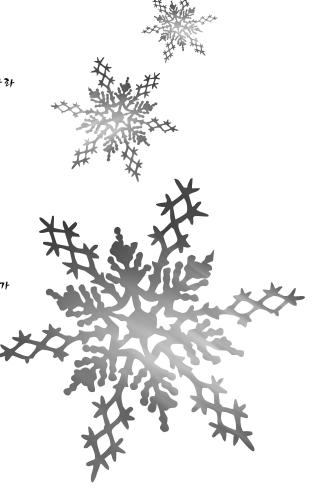
# 겨울은 가와

#### 정 관 호 | 출소장기수

언덕배기 쪽방 할머니
추위로 떨게 한 겨울은 가하
방학을 맞은 어린것
정심을 굶게 만든 거울은 가하
길거리 천막 속 해고노동자
그 등짝을 얼하는 겨울은 가하
갯벌 속 영물들을 타 죽게 만든
그 몹쓸놈의 배터진 석윳배 겨울은 가하
부키던 제 식구를 감옥에 처넣고
훔친 돈으로 그림을 사서 숨긴 겨울은 가하
친일과 반역에 맞선 어른을 떠나보내고
그 상여 앞에서 숭행문을 무너뜨린 겨울은 가하

백난로를 끼고 앉아 포만에 조는 친일후손들이 땅의 정체성은 영구동토의 미이하가 되고 파형치만이 득세하는 도박장으로 변한다. 기큰 자의 머리는 천장을 뚫는데 않은뱅이 허리는 땅 속으로 꺼진다 참회로 흐르는 눈물은 고드름이 되고 분노로 치미는 불길은 용앙으로 식어 굳는다아, 이 땅에서 나고 자하 늙어가면서 후손에게 내리 예속의 멍에를 물회줘야 하는가

길고 긴 칠흑의 어둠 속 겨울은 가하 얼음을 먹고 사는 부하퀴 겨울은 가하 철창 속 양심수 손밭을 묶은 겨울은 가하 본 거訓를 다시 본단의 철벽 속에 가두되는 끈질긴 망나니 겨울은 가하, 겨울은 가하



## 수락산 산행을 마치고

김익 | 국가보안법 피해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 여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12월에 보석으로 풀려나와 지금은 항소심을 진행중인 김익입니다.

예전에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민 가협 목요집회에서 자주 만나 뵙고 있는 권오헌 민 가협양심수후원회장님의 권유로 산행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약간의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학생운동을 마치고 수년동안 수배상태로 지내면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출소후에 민주노동당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성북지역위 축구모임에 참가하며 매주 일요일 오전에 열심히 축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행을 하고 나서는 산악회에 가입하기 를 정말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참 여하겠습니다.

산행을 하는 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성북지역위 축구모임이 있는 국민대에 잠깐 들러서 인사를 드리고 늦을까봐 서둘러 집결장소인 당고개 역에 갔습니다.

여러 등산객들을 따라서 전철 플랫폼을 나서니 오 랫동안 못 보았던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씩 보였습 니다.

예전에 학생운동을 할 때 집회와 시위, 통일행사장에서 보았던 장기수 어르신들과 범민련 선배님들 그리고 경당 사범님도 만나뵙고 인사를 했습니다. 경당사범님은 자신의 배낭에 막걸리를 가득 채우시고 저의 가방에도 막걸리를 몇 병 넣었습니다.(음주산행의 예감)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간사이신 송지영씨에게 회비 3 천원을 납부하고 "6.15한마음 통일산악회"라고 쓰인 명찰을 받아 가방에 달았습니다.

그날 날씨가 제법 쌀쌀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집결시간인 10시가 되자 당고개 역에 모인 20여명의 회원들은 권오헌회장님의 인솔하 에 주택가 골목길 사이로 수락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 니다.

산중턱의 학림사라는 절까지는 승용차가 다니는 길이 나 있어서 산행하는 느낌은 좀 덜했습니다. 그 길을 오르면서 어떤 분(여성분)의 지팡이를 고쳐드리기도 하고 김영식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올라 갔습니다. 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회원마당

제대로 된 등산길로 한참을 올라가보니 우리가 올라 간 길은 통제된 길이었습니다. 능선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드디어 막걸리가 나왔습니다. 멸치 안주에 막 걸리를 한잔씩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니 바람부는 산 등성이라서 그런지 좀 춥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정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자 추위는 싹 사라지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장기 수 어르신들이 가파른 비탈길도 거뜬히 오르시는 것을 보고 그분들의 체력에 새삼 놀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 면 그분들의 체력의 근원은 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점심시간 무렵에 치맛바위에서 장기수선생님들은 남아 계시고 나머지는 하강바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잠시 길을 헷갈렸다가 산악회 회원분을 만나서 뒤늦게 하강바위에 올라갔다가 바위 위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수락산 정상은 아니라도 마치 정상에 오른기분이었습니다.

치마바위에 집결한 산행대오는 기념촬영을 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한 점심식사 자리를 물색하면서 하산했는데 한참만에야 적당한 자리를 발견하여 돗자리를 깔고 각자 가져온 점심밥과 술들을 내놓았습니다. 한상 푸짐하게 차려진 점심을 먹으면서 술도좀 마셨습니다. 산속에서 먹는 밥과 술은 정말 꿀맛이

었습니다.

하산 도중에 어떤 어르신이 본대오와 떨어지는 사고 가 있었는데 김영식선생님과 다른 분들이 찾으러 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점심식사를 마무리할 때 쯤에 다행히도 무사히 돌아오셔서 점심을 드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산악회 총무님에게 기념품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좋은 기분으로 하산을 하면서 약수도 마시고 큰 바위위의 나무그림자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산하면서 김영식선생님의 열정이 담긴 여러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산 후에는 감자탕집에서 뒷풀이를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산행에 참가했다고 간단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여건상 못한 산상강연을 대신하여 권오헌회장님의 강연을 듣고 건배를 하며 즐거운 뒷풀이를 했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그렇듯이 통일산악회에서도 산행의 공식해산 후에도 2차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도그 대열에 동참하여 맥주를 마시며 산악회분들과 좀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하나로 뭉쳐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안고 하는 산행이라 그런지 산행후의 피로감보다는 가슴 뿌듯함이 있는 산행이었습니다.

3월 정기산행이 기다려집니다.



## 이달의 씨엠에스 신입회원

권정기님 안관혁님 김재원님이 신청해주셨습니다.

#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 보내실 곳

■FAX: 02-888-4470 ■E-mail: yangsimsu@hanmail.net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예금격	5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길			
주 소					·			
후원금액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기타(	)

2008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 ┃ 2008년 2월 21일 현재총 56명 ┃ 민기협 조시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 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오승록	군인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7.12.4	병역법	1년6월	2009/06	육군교 145	기결
전남수	노동자	건설기계노조(순천)	노조활동관련	2007.6.26	업무방해	10월	2008/04	군신교 1057	기결
박은진	노동자	건설기계노조(순천)	노조활동 관련	2007.6.26	업무방해	10월	2008/04	장흥교 113	기결
정수용	노동자	건설기계노조(순천)	노조활동 관련	2007.6.26	업무방해	1년	20 08/06	군신교 1057	기결
김봉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 폭력	2년6월	20 08/06	마신교 2053	기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 폭력	3년6월	2009/01	김천교 709	기결
정은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 폭력	2년6월	20 08/06	경주교 410	기결
김명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 폭력	2년6월	20 08/06	진주교 9	기결
심진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 폭력	2년6월	2008/06	포항교	기결
김병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 폭력	2년6월	20 08/06	김천교 631	기결
정승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 폭력	2년6월	2009/01	마신교 1934	기결
구권서	노동자	공공서비스노조(서울)	경북칠곡환경미회원 파업(05년)	2007.7.13	업방, 집시	10월	20 08/05	서울구 115	기결
이경순	노동자	망형휴게소 노조	노조활동 관련	2007.1 1.16	업방, 특공			천인소 45	미결
이군봉	노동자	민주노동당	이랜드 불매집회 관련	2007.11.2	업방, 집시			영등포구 3435	미결
양일석	노동자	민주노동당	범국민대회(11/11) 관련	2007.11.11	집시, 특공			서울구 131	미결
양태조	노동자	민주노총	한마FTA반대집회(07년)등	2008.1.7	집시, 특공			영등포구 3413	미결
이전락	노동자	민주노총(경북)	홈에버(포항) 불매운동 관련	2008.2.12	업방, 집시			포항교 3004	미결
배성훈	노동자	민주노총(경북)	포항건설노조 파업(06년)관련	2008.2.12	업방, 집시, 특공			포항교 3005	미결
정희성	노동자	민주노총(광주전남)	한미FTA반대집회(11/22)	2007.4.30	집시, 공방	1년6월		순천교 1622	기결
박종갑	노동자	민주노총(대전)	한미FTA반대집회(11/22)	2007.3.16	집시, 공방	1년6월	상고중	대전교 593	미결
김형근	노동자	전교조(전북)	찬양고무	2008.1.29	국보			전주교 2501	미결
변외성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한국노총항방	2006.9.19	폭력	1년+1년6월	20 08/08	원주교 222	기결
강성철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행방	2006.9.19	폭력	1년6월	추가기소	영등포구 3402	미결
김세만	노동자	플랜트건설노조(포항)	임금체불항의	2008.1.24	업무방해			포항교 3002	기결
엄기현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파업(07년)	2007.11.7	업방, 특공	1년	20 08/07	부신구 60 15	기결
정칭화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 1.19	업방, 특공			천인소 2203	미결
정영철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노조연대활동	2007.10.31	업방, 특공			천인소 2193	미결
양승무	노동자	화물연대(음성)	CJ 파업(07년)	2008.1.21	업방, 특공			수원구 343	미결
조성만	노동자	화물연대(음성)	C파업(07년)	2008.1.21	업방, 특공			수원구 344	미결
위두환	농민	전농(광주전남)	한미FTA반대집회(11/22)	2006.11.26	집시, 폭력	1년6월	20 08/06	장흥교 50	기결
김영현	어민	광양군 어민회	포스코건설 항의집회	2007.4.5	집시법	10월	상고중	목포교 8	미결
황교영	어민	광양군 어민회	포스코건설 항의집회	2007.4.5	일반교통방해,집시	1년	2008/04	순천교 1592	기결
전욱용	재야	개인	북한방문	2004.1 1.18	국보	3년6월	20 08/05	광주교 5009	기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	2009/10	안동교 30 10	기결
정재훈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7.5.22	병역법	1년6월	2008/12	영등포구 2542	기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7년	20 13/10	대전교 40 09	기결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20072.1	국보	3년6월	상고중	서울구 151	미결
정수평	재야	개인	회합통신등	2006.4.10	국보	2년	2008/04	대전교 1001	기결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4년	20 10/10	대구교 45	기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4	국보	3년	2009/10	전주교 25 10	기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6월	20 10/03	대전교 4003	기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방문	2006.10.23	국보	2년 6월	2009/03	전주교 2500	기결
김양호	재야	민주노동당(대전)	한미FTA반대집회(11/22)	2007.1.3	집시, 폭력	1년6월	상고중	대전교 1911	미결
송현아	재야	실천연대	이적표현물	20082.19	국보, 선거법			남대문서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6.8	폭력, 화염병	3년	2008/06	경주교 500	기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6.8	폭력, 화염병,치사	3년	2008/06	안동교 15	기결
김핵명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6.8	폭력, 화염병	3년	2008/06	홍성교 200	기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5.3	화염병, 치사	6년	20 09/05	장흥교 11	기결
김치수	재야	한국사회당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7.9.13	병역법	1년6월	2009/03	여주교 1538	기결
허 연	재야	한국진보연대(광주전남)	범국민대회(11/11) 관련	2007.1 1.21	집시, 특공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06	미결
유정민석	학생	동국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7.8.17	병역법	1년6월	20 09/02	여주교 1535	기결
맹종환	학생	조선대	한미FTA반대시위등	2008.1.7	특공, 집시			광주교 33 16	미결

- 🚳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공동 주최로 '김형근교사 구속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다. 전북 임실군 관촌중 김형근 교시는 2005년 5월 학생들을 인솔해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에 참석한 일로 2007년 4월 뒤늦게 압수수색을 받고 10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7월 수사가 종결된 상태에서 갑 자기 구속되다. 전교조 정진화위원장의 여는 말, 박태동정책 국장의 경과보고, 민변 설창일변호사, 진보연대 오종렬공동 대표, 민가협 임기란전상임의장 등 규탄발언과 한싱렬 진보 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 낭독하다.
- ☞ 한미연합시(사령관 버웰 벨 미육군대장)은 3월2일~7일까지 이남 전 지역에서 '한미 키리졸브(key resolve)연습'이 실시 된다고 밝히다. 기존의 연합전시증원연습(ROSI)을 대체하는 연습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투입되 는 증원군을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하는 것을 비롯한 한 미연합합동연습'이라고 하다. 또한 독수리연습(Foal Eagle) 으로 불리우는 연합합동 야외기동연습도 키리졸브와 연계하 여 실시한다고 하다.

-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 일동의 이름으로 한겨레신문에 민 주노동당의 일심회 관련 최기영, 이정훈의 출당, 제명에 관한 반대의견 광고를 내다.
- 🚵 민노당비상대책위원회의 이른바 '일심회'사건 관련 양심수 (당원)의 출당 제명방침 등 혁신안과 관련 일심회사건 이정 훈씨 부인 구선옥님 등 가족들과 문치웃 가족대책위간사 이 시우평화사진작가와 부인 김은옥님 양심수후원회 권오헌회 장 등 심상정비대위위원장을 면담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된 양심수를 본인소명은 듣지않고 출당 제명하는 논의를 즉 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 민주노동당임시 당대회가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밀레니엄 홀에서 열리다. 이날 당대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네 가지로 ● 제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 승인의 건 (이정훈 최기영당 원 제명권포함) ●18대 총선방침과 비례대표후보선출방안 승 인의 건 ●2007년 결산과 감사보고승인의 건 재정위기 대책 과 상반기 예산 승인의 건 등이었음. 당대회 대의원 총수는 1.332명으로 이중 사고 9명. 재적 1323명. 참석대의원 739명 으로 성원이 되다. 개회와 심상정대책위위원장 정치연설에 이어 현장안건 두 가지가 채택되다. 임시당대회 특별결의안

채택의 건. 임시 당대회별첨혁신안 첨부의 해설자료 폐기안 등이었음. 상정의안 축조심의에서 이른바 '민주노총당'' 친 북정당 ' 등 항목 삭제되다. 토론과 정회가 이어지면서 마침 내' 일심회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 위 '라는 안건이 전면 삭제를 요청하는 수정동의안이 재석 862명, 중 553명의 찬성으로 전면삭제 결정되다. 비대위 혁 신안 중 일심회 관련항목의 폐지가 선언되다. 심상정비대위 원장 퇴장하고 비대위위원과 일부당원 퇴장하여 다음 안건 심의에 필요한 과반수인 662명에 8명이 모자라 당대회는 산 회를 선포하다.

- 🙆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상대책위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당의 혁신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비상대책위원과 함 께 총시퇴하겠다고밝히다.
- ☞ 대통령직 인수위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 통폐합방 침에 반대하여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지난 2일부 터 인수위 앞에서 일인시위를 해오다. 이날은 권오헌 계승연 대 상임대표가 일인시위를 했고 오후에는 국회 – 한나라당 안 상수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진실화해정리 위원회의 통폐합안 철회를 촉구하다 (권오헌 강민조 이병주 조광철외)

-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공동위원장 곽동의. 문동 환,이하 6.15해외위)가 통일부 통폐합에 관한 반대성명을 발 표하다. 615해외위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에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통일 부를 폐지하고 외교부에 통합한다는 것은 민족의 성업인 통 일문제를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며 이는 조국통일을 일일천추 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고 비판하 다. 성명은 "이명박 당선자는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10·4선언의 이행에 최대의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며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통일부를 폐지할 것이 아 니라 통일부를 존속시켜 그 기능을 보다 확충하고 민족중시 의 입장에서 남북(북남)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을 위한 적극 적인 통일정책을 펴나가기를 촉구한다"고 제언하다.
- ◎ 민주노동당 노희찬의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당 대회에서 '일심회' 관계자 제명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 탈당 할 것을 선언하다.또한 서울지역 총선 일부 후보들과 전 현직 지역위원장 20여명도 탈당을 선언하고 새로운 진보정당건설 에 나서겠다고하다.

## 2008년 2월

- 현대아산은지난해 금강산 관광에 35만 명이 넘어섰고 올해는 43만 명으로 잡다. 개성관광 10만 명, 백두산관광 15,000명 등 총 55만 명으로 계획하고 2005년 57억 흑자, 2006년 37억흑자, 2007년 100억흑자를 냈고 2008년엔매출 5,000억예영업이익은 400~500억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다.
- ★ 현영세 민주노동당 대표직무대행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당원들에게 '탈당분당을 고민하기 앞서 우리고 품고 달려온 민주노동당을 생각하고 분열을 결심하기 앞서 단합의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호소하다. 또한 '분열과 대결이 진보정치세력에 가져다줄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좌절이라며 진보정당 8년이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 혁신해서 재도약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하다.
- 耐한 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회는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남북이 각각 20가족씩 이산가족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하다.
- 한평생을 조국독립과 민족사를 바로잡기 위해 헌신해 온 조 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이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오 던 중 이날 5시 향년 82세로 별세하다. 고인은 1945년 7.24 일일제강점말기 친일반역자들이 모여 매국행패를 하기로 한 '부민관폭파의거'를 결행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조국의 환전 해방과 독립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이승만독재정부로부 터 박해를 받았음. 1991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출범하며 1999 년 2기 이사장으로 오늘까지 친일인명사전발간사업 등에 헌 신해 왔으며 '우리의 자주독립 투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 이라고 말해 왔었음.

अ남과 북 축구대표팀이 2010년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에선 첫 경기에서 각각 승리해 월드컵 최종예선 동반진출 가능성을 열어놓다. 남측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트로크베 니스칸과의 경기에서 4:0으로 이겼고 북측대표팀도 암만 국 제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의원정경기에서 1:0으로 이기 다. 남북은 오늘 3월평양세서 남북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 한평생을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온 부산에 사시는 김상찬 민자통공동의장이 78세로 일기로 별세하다. 1948년 단선단정반대운동을 펴온 이래 2000년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상임고문, 민족문제연구소 명예회장,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등을 역임해왔음. 고인의 장레는 '통일애국지사 김상찬선

센민족통일장' 으로 10일 오전 10시 부산대장례예식장에서 영결식을 갖기로 하다.

08-----

- 민족명절 '설'을 맞아 낙성대 만남의 집에 많은 회원들이 문 상봉 김영식 선생님들께 설 인사 드리다. 김호현 안병길 이현 근 김혜순 모지회 신현부 총련동포 리정애 권오헌 등과 관악 구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회 회원들이 함께 하다. 별도로 출소장기수선생님들과 통일원로 선생님들께 전화로 설인사 름 드리다.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 신문을 '강경일변도로는 백해무익하다'란 개인 필명 논평기 사에서 '미강경보수세력들이 대화와 협상의 상태로 문제해 결을 끝끝내 반대하여 조선반도의 정세와 조미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이끌어 가는 경우 지금까지 공든 탑이 수포로 돌이갈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미 강경보수세력들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추구는 우리군대와 인 민의 반미의식을 100배 높혀주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 히다.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이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을 위한 것이지 결코 나약성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 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 서울대병원 장례예식장으로 '고 조문기민족문제연구소이사 장' 빈소를 문상하다 김호현부회장 권오헌회장 참석하다.

- 쓸 낙성대 '만남의 집'을 지난해 사면에서 출소한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위원장과 국가보안법관련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익 씨가 찾아와서 선생님들께 세배드리고 뜻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다.
- ★울 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코홀에서 '독립투사 고 조문기선생 겨레장 장례위원회'(공동장례위원장 임헌영, 윤경로, 오종렬, 최병모, 함세웅) 주최로 '독립투사 고 조문기선생겨 레장 영결식이 진행되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 장의 사회로 진행된 영결식에서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 원장이 약력보고를,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국주 광복회 회장(대독)이 추도사를 했으며, 가수 안치환이 '부용산'을 조기로 부르다. 이기형 시인의 조시 낭독에 이어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의 영결사, 유족대표 사위 김석화씨의 인사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의 추도사.

부민관 폭파의거 동지였던 고 유만수선생의 장남 유민씨가 추도시를 하다. 이어 오전 11시경 선생의 영정을 앞세운 장 례위원장들은 당시 부민관 자리인 서울특별시의회 건물 안 을 둘러보고 나와 시의회 앞마당에서 간단한 노제를 가지 다. 노제를마치고 수원자택을 경유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안 장식을 갖다.

- 🊳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저지를 위한 전국유기족비상대 책위원회'는 오전 11시 서울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다.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여사, 군의문사 유가족 허영춘아버님의 발언 등이 있었고, 한상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의 비난 발언 '한국전쟁피학살자유족회' 유호상 협력위원장의 기 자회견문낭독이이어지다. 이어참가자들은 '과거사위 통폐 합온몸으로 반대한다', '국민기만 과거사왜곡 한나라당 각 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항의서한을 한나라당 당사에 제출한뒤 기자회견을 마치다.
-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오는 12~13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개성 -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과 관련, △지난해 12월 진행한 현지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과 △공동이용 방안 등 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에서는 김명국 위원장(건설교 통부 도로기획관)과 위원 2명이, 북측에서는 강수진 위원장 (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과 위원 4명이 회담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 ★ '615민족문학인협회'는 남과 북 해외 문인들이 함께한 가 운데 선양 시내 국제세계호텔에 모여 남과 북의 문학적 통 로가 될 '통일문학' 창간을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하다. 남 측에서는 신세훈 한국문인협회 전 이사장을 단장으로 정도 상 위원장, 시인 김형수, 이문재, 윤석정, 한분순씨 등이 북측 에서는 장혜명 6.15민족문학인협회 북측 대표단 단장을 비 롯해 4명, 해외에서는 정화수(일)시인과 이준식(독일)시인 등이 함께하다. 통일문학은 이북에서 인쇄한 것으로 남측에 2,000부를 2월 하순께육로로 전달될 예정이다.
- ☎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범민련남측본부가 곳동으로 '미군정 쟁예비탄약(WRSA\_K)4차협상 중단축구기자회견'을 열고 1조원혈세낭비 주민파해 환경오염 불러오는 미군쓰레기 탄 약매입 중단과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 령부에서 한·미간 WRSA(전쟁예비비축물자) 이양을 위한 4차 협상 중단을촉구하다.

- ☞ 광화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영화상영회가 열리다. <한 여학생의 일기 >라는 작품 상 영회에는 통일광장 김영식, 김영승, 김해섭, 변숙현, 송세영, 안일룡, 한재룡 선생님과 회원 김순자, 김래곤, 이유, 조영건, 한찬욱 외다수가 함께 하다.
-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무건리주민대책위 민 가협양심수후원회 외 여러 단체 공동으로 '101차반미연대집 회'를 소속단체성원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리다. 박종 양 경기남부평통사간사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회장의 '미국은 행동대 행동원칙에 따라 2.13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 구하는 여는 말. 오혜란 평통사자주평회팀장의 미국의 한미 연합키리졸브연습과 MD계획 등 대북무력위협 중단촉구 발 언 주병준 무건리주민대책위원장의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 투쟁보고 강상원평택문화센터 소장의 평택미군기지 확장저 지투쟁보고 등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정전체제 라고 쓴 박스 를 짓밟아 부수고 평화제체 깃발을 꽂는 상징의식을 진행하 며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국장의 결의문낭독으로 모두 마 치다.
- ★ 한미FTA비준동의안의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을 막 기위해 민주노동당의원들이 11일 위원장실을 점거한데 이어 이날같은 당 강기갑의원이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다. '국 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농업 수산업 의약품 자동차 서비스 금융섬유 보건의료 노동환경 전자상거래 등 17분야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 치는 내용 '이라며 한두 차례 공청회를 하고 처리하겠다는 것 은 검증이라기보다 요식행위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 하다.

- 🏟 한미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동의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기습상정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통외통회의실을 점 거농성하고 있는 동안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3회 의실로 장소를 옮겨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15일 공청회를 여는 등 비준동의안 절차를 밟기로 하다. 특히 한나라당이 적 극적으로 17대국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다. 한편 민노당은 상임위가 열리는 동안 회의장 입구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회비준동의안을 날 치기 상정했었다며 졸속강행 방침을 중단하고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하다.
- ☞ 육군본부는 14일부터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육군항

## 2008년 2월

공작전사령부와 제20기계화보병사단 장병 및 장비가 참기한 가운데 공중강습 및 대규모 도하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다. 이 훈련에는 코브라(AM\_IS)공격헬기, KIAI전차 80여대, K\_200장갑차 200여대 등 육군의 주력장비는 물론 지원 및 배속부대 공병부대 도하대대 장병 및 장비가 참기하여 실전을 방불케하는 기동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훈련은 4박5일간실시되며 강한 하천의 결빙 등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악조건 극복능력을 배양함으로서 동계전투능력 및 육군항공대와기계화부대의 통합전투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주최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800차 수요시위'가 진행되다. 1992년 1.26일에 시작하여 16년 동안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오다. 위안부문제는 해외에서도적극 호응 미하원과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에서 일본군위안부결의인이 채택되기도하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일본나고야에서 '구일본군에 의한 성적피해자여성지원하는 모임'대표 쿠노.아야코여사 등 국제활동가들과 청심국제고등학교 학생, 늦봄 문익환학교학생들도 함께하여 편지글을 읽고노래공연도 있었음

- - - ·

- 耐 696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리다. 임기란 운영위원의 여는 말, 조승화 이주노조 선전차장의 여수 외국인보호소 1주기, 이주노동자들의 현황에 관한 보고, 권오헌 공동의장의한 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 규탄 발언에 이어 '엠네스티 48그룹' 톰과 마이클의 인사가 이어지다.
- ★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47번지 2층사무실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평화통일연구소사무실이전 개소식이 있었음. 평화와 통일운동단체성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홍근수 평통사상임대표의 인사말,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장의축문낭송, 임방규 통일광장대표, 조헌정 향린교회담임목사 등 축하인사 등이 있은 다음 현판식과 기념촬영 등이 있었음
- 민주노동당 4층 브리핑룸에서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한청등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단체공동으로 민주노동당의 단결강 화를 촉구하는 대중단체 공동입장 발표기자회견을 열다. 이 들 단체는 총선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종북주의' 논란 관련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며 평생당원기입운동 등 구당운동과 당 의 쇄신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8일 21일 두 번에 걸 쳐 개최한다고 하다.

여의도 국회인근 산업은행 앞에서 농민 5,000여명이 함께하여 '한마FTA 저지 농민생존권쟁취 전국농민결의대회'가 열리다. 박의규 한농연회장 한도숙 전농의장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등이 나서 새정부의 농진청폐지방침 비료 사료값 폭등 쌀값하락 등 농민들은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한마FTA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결의하다. 한편 같은 시각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상정규탄결의대회'를 열였고 한미FTA저지범국본운동본부는 국회 앞 인근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 29일까지 계속하기로하다.

16

- 🏟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21세기코리아연구소 주최 한국진보연대 후원으로 'COREA반도 대변혁기 - 정세 전망총선전략토론회'가 열리다. 1부 정세전망에서는 김혜영 21세기코리아연구소연구위원 사회로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의 '한(조선)반도의 정세변화와 이명박정권의 등장'. 민 경우 진보연대정책기회위부위원장의 '이명박정권출범과 경 제위기 민생파탄의 가속화', 장창준 민주노동당 통일정세연 구원의 '이명박정권출범과 남북관계 전망', 황혜로 21세기 코리아연구소연구위원이 '이명박정권출범과 총선정국분석' 이란 각기 발제와 상호토론이 진행되다. 2부는 총선전략으로 이상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부위원장 사회로 한호석소장의 ' 21세기사회변혁운동과 진보적정권교체반성과 전망', 정정 희소통과 혁신연구소소장의 '진심을 바쳐라-민주노동당단 결과 혁신을 위하여',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의' 현정세와 한국진보연대의 임무', 김장민 민주노동당집권전 략위원회 기획위원의 '민주노동당 총선승리를 위한 제언', 강순영 21세기코리아연구소연구위원이 '코리아반도대변혁 기 총선정국의 기본전선'을 각기 발제토론하다.
- ♠ 후원회소식 196호 발송작업이 있었습니다. 문상봉 선생님 나 순석 이봉주 나정옥 모성용 송지영 임미영 함께 하였습니다.

17

★ 6.15한미음통일산악회'2월 산행의 날 지하철 4호선 당고 개역에서 모두 20명이 모여 수락산 학림사를 거쳐 상계능선을 타고 수락산 중봉가지 등반하다. 가파르고 우람한 바위를 오르면서 위험성과 성취감을 함께 느끼기도 하다. 음지에는 얼음이 녹지 않고 있어 조심해서 오르다. 정상까지 200여미터를 남겨놓고 수락산역쪽 계곡으로 내려오다. 양지바른 곳에서 차려온 점심을 먹고 날씨가 추워 산상강연없이 하산하다. 미리 예약된 수락산 입구음식점에서 산행뒤풀이를 하다. 자기소개시간에 이어 강연 대신 정세보고형식으로 권오현산

악회장이 최근에 나타난 정세를 말하다. 6자회담관련 2.13합의의 2단계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문제, 이명박정부(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관련 통일부 통폐합방침과 한미동맹강화등 냉전시대로의 대결정책,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의 분당탈당사태 등 최근 사태를 보고형식으로 말하다. 이날 산행에 김영식 김영승 김순자 김재선 이정태 신현익 나순석 이병권이호연 이호준 이은재 김래곤 김혜옥 김익 송세영 탁무권 송지영권오헌 함께하다.

#### 18

- ◎ 미국군의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 부대가 다음달 초에 진행되는 '키리졸브(Key resolve 옛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에 참가하기위해 15일 대구 미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이 날뒤늦게 밝혀지다.
- 전주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6.15남측위 주최로 김형근교사의 구속영장내용에 대한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경찰이 간담회 주최측의 출입을 막아나서 무산되다. 주최측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형근 교사에 대한구속영장에서 6.15공동선언이 전면부정되고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불법이적단체로 규정하는 표현이 언급된데 유감을 표명하다'며 .6.15남측위에 대한 부당한 비방과 색깔덧씌우기에 총력 대응할 것 '이라고 하다. 기자간담회에는 정진화 전교조위원장, 이강실 6.15전북본부상임대표, 방용승 공동집행위원장, 정현근사무처장, 조영선 (민변)협동사무처장, 박태동 전교조통일국장과 김형근구속대책위 노병섭공동대표등이 함께하다.

#### 19

- 북핵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19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베이징시내 주중 이북대 사관에서 만나 북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등을논의했다고 언론들이보도하다.
- ☎ 2006년 10월 금강산에서 남과 북, 해외의 문학인들이 결성한 '6.15 민족문학인협회'의 기관지로 반년 간 문학잡지인 남북한 첫 공동문학잡지인 '통일문학'이 일부 구절의 이적성 여부가논란이 돼 반입 자체가 봉쇄될 위기에 처하다. 지난 5일 평양에서 5천부가 인쇄된 뒤 11 중국 선양에서 남북과 해외문인들이 모여 창간식을 가졌고, 이달하순 개성을 통해 2천부를 건네받아 국내 독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통일부가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다고 반입을 불허하다. 이에 대해정도상 6.15 민족문학 남측대표 집행위원장과 한국작가회의사무총장을 지낸 김형수 6.15 민족문학남측 집행위원이 강하

게반발하다.

- 삼청동 대총령직 인수위 앞에서 37개 평화통일단체 공동으로 '한국의 네오콘 남주홍교수의 통일부담당 내정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묵 진보연대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상 렬공동대표의 여는 말, 평통사 오혜란자주평화팀장, 민조노총 박정곤부위원장의 철회촉구발언과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광주지법 제2형사부(강신중부장판사)는 이적단체가입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5기 한총련 류민선의장(전남대총학 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 집 행유에 4년을 선고하다.
- ★ 서울시 경찰청보안수사대는 남북공동실천연대 송현아선전 위원장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체포 옥인동 보안수사대로 강제연행하다.보안수사대는 이날 송현 아씨집을 가택수색도 했음. 송현아씨는 지난해 이른바 학생 운동 배후조정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재춘씨 부인이며 지난 1.29일 결혼을 해 신혼여행을 하루 앞 두고 있었음. 지난해 이재춘씨가 구속되었을 때도 가택압수 수색을 당하고 최근여러 차례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오고 있 었음.
-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는 세종로 종합청사 앞에서 '해고구속노동자 원직복직과 원상회복을 위한 집중투쟁기자회견'을 열다. 이호동 전해투위원장의 여는 말. 민주노총 주봉회부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과 해고노동자 복직촉구발언이 있었음. 2008년 2월 현재 전국의 해고노동자는 울산지역 228명, 수도권18명, 부산양산지역 36명이고 연맹별로는 공무원노조 140여명, 공공부분 133명, 금속연맹 24명, 전교조 18명, 서비스 75명, 대학조조 23명이다.
- 민기협양심수후원회 권오현대표는 영등포구치소 이랜드불 매집회관련으로 구속된 이군봉 민주노동당원을 면회다녀오 다. 이어 여의도 국회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비준동 의반대농성장을 격려방문하다.

#### 20

- ★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비준동의 반대 농성장'에 1일 참가하다. 임선영 소수영 임미영 함께 하다.
-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송현아씨 연행 사건을, 올해 초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 연행을 시작으로 정설교 농민시인

## 2008년 2월

유죄판결, 김형근 전교조 통일교사 구속, 진보단체 인터넷 검열과탄압등 "이명박 새 정부의 연이은 공안탄압"으로규 정, "강력히 규탼"하면서 "송현이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 구"하다.

- 한국진보연대 회의실에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 평통사자주평화팀,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총 통일국, 민변 미군문 제연구위 양심수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키리 졸브연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가지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다. 다음달 1일 오후 2시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앞에서 '대북 전쟁연습 중단 촉구집회'를 열고,본격적인 군시연습이 시작되는 2일부터 한미연합지휘소 앞에서 '키라졸브 전쟁연습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7일까지 1인 시위 및 피켓팅을 벌일 계획이며,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는 한미군사연습 현장에서도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하다.
- 항남 역삼동 BBK 정호영특검팀이 들어있는 건물앞에선 평통사등 시민사회단체등 ③여명이 모여 '이명박특검의 BBK 주가조작 등 무혐의 방침규탄기자회견'을 열다. 유영재 평통사정책실장의 기자회견 취지말, 권오창 실천연대대표, 인천불교인권위 밀항스님 등 규탄발언이 있었고 민기협 이영상임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회견을 마치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이 정호영특검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다.
-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존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하다. 이로써 인수위 원안이었던 13부2처에서 15부처로 조정되면서 국무위원으로 재정되었던 남주홍 경기대교수는 통일부 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부총재는 여성부장관으로 입각하게 되다. 논란이 있었던 과거사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의 개편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기구로하되 위원5명 중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그중 1명은 위원자장으로 임명하며 남은 3명은 국회가 추천, 여당 1명 야당이 2명응 추천하기로 하다. 국기인권위원회 국립박물관을 현행대로 하다.
- 미핵잠수함 '오하이오호' 가 한미합동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참가차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한미연합사가 밝히다. '오하이 오호'는 1982년 취역 당시에는 사정거리 7,400킬로미터의 트라이던트1형 탄도미사일을 장전한 미해군의 최정예 핵잠 수함이다. 다음달 2~7일까지 남녘전역에서 실시되는 키리졸 브/독수리연습은 기존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를 대체

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으로 미본토에서 증원되는 미군 6,000명과 주한미군 12,000명이 참가하고 핵추진 '니미츠 '항공모함(93,000톤)호가 참가하며 이와 별도로 해상대기미국 9,000명이 함께하게 된다.

#### 21

- 옥인동 서울경찰청보안수사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 연대주최로 남북공동실천연대주관으로 '송현아 즉각석방 촉구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여는취지 말, 이영 민가협 상임의장,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민변의설창악변호사, 송씨가 속해있는 '실천연대'의 경과보 고 신랑 이재춘씨의 규탄 발언, 윤한탁 실천연대 상임공동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이영 상임의장 등 민가협회원과 실천연대 윤한탁 서상호선생 권오헌 양심 수후원회장 등 남대문서로 송현아씨를 면회하다.
- ★ 한국노총항의방문 사건으로 1년 6개월을 받고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변외성씨를 면회하다. 상도동 철거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면회가 수월치 않아 모성용운영위원이 차량을 제공해 아들과 막내딸을 데리고 송지영 간사 함께하다.
- 합골공원 앞에서 제 697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리다.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 날 송현아씨가 신혼 여행가기 전날 국가 보안법으로 연행된 것에 대한 남편 이재춘씨의 규탄발언 권오헌 공동의장의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 및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규탄발언, 방승용 김형근교사 석방촉 구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의 김 형근교사 석방촉구 발언이 이어지다.

22 -

한・미 합동 '전시지원(WHNS) 절차 모의연습(CPX)'이 국방부군수관리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 주관으로 육군 제55사단에서 실시되다. 한미 합동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모의연습(CPX)에는 한미 업무 담당자, 행정관서 및 업체관계자 등 100여 명이참석하여, 군・관・민이 합동으로 전시지원 관련 절차 및 역할을 시연하다.

23

- 용인55사단에서 한미합동으로 전시지원(WHNS)절차모의 연습이 실시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전시지원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에게 이남정부의 군 민간 이 지원하는 계획으로 한국군의 충무계획에일치시켜 반영 되는 것으로 확인되다. 행정자치단체로부터 토지시설 뿐 아니라 식당 목욕탕 등 민간소유자원까지 지원받아사용하 게 된다.
- 역사 문화 환경 통일 민속 등을 주제로 매년 3~4차례 기행을 해오고 있는 오감시롱이 청계산 입구 한 음식점에서 2008년 총회모임을 갖고 2007년 사업을 평가하고 새으뜸일꾼으로 김혜순회원을 뽑다. 김혜순 으뜸일꾼은 후보로 추천되었던 김재현 모성용 김길자 신현부회원을 2008년 운영 팀원으로 승인받다.
- 신당동 충무이트홀 컨벤션센터에서 '민족문제연구소 2008 년 정기총회'가 열리다. 고 조문가이사장 추모영상에 이어 임헌영소장의 기념사,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의 축사, 2007년 사업평가와 결산보고 감사보고 2008년 사 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등이 있었고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 회보고등이 있었음
- 중로5가 기독교 2층 대강당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시람들(평통사)'이 14차 운영위원 총회와 출범식을 갖다. 총회에서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시안)을 바탕으로 3월 1일 평화협정실현 1차 대장정출범을 선포하고 정전협정체결일인 7월27일까지 10만인선언조직과 1만 명규모의 727집회를 열기로 하다. 또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이 MD(미사일방어체제) GP(글로벌파트너쉽) 등 이명박정부의 한미동맹강화에 따른 추진계획을 반대하는 중요시업계획안을 채택하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평화협정결정운동을 핵심과제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다. 출범식에서는 신임 배종렬상임공동대표의인사말,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축사 결의문채택이 있었음.

24 -

- 한미연합시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5일(18일보도) 대구공군기지에 도착한미신속기동군 '스트라이커여단'의 실사격훈련을 공개하다. 군사분계선(MDL)인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로드리게스(RODREGUES)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 2대의 실사격이 진행되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스트라이커여단은 미 25보병사단 25여단 1 대대소속 알라스카주둔 부대로 이 땅에 처음 전개되다. 규모는 스트라이 커장갑차 3대와 병력 68명으로 2개 소대이며 여단전체가 보유하는 장갑차는 570대규모이고 1 대당 11명이 탑승하여 전체병력은 6000명이다.
- ☞ 평통시는 이날 '로드리게스' 사격장 앞에서 '스트라이커여 단' 실사격훈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벌이다. 이들은 '북을 위협하고 한반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실사 격훈련을 강력규탄한다'며 실사격훈련즉각중단하고 이 땅 에서떠나라'고 촉구하다.

25 -

- 여의도국회 앞 광장에서 17대대통령취임식이 진행되다. 이명 박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미래지향 적동맹관계로 발전시키며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겠다 '고 하다. 또한 유엔평화유지군(PKO)에 적극참여 공적개발원 조(ODA)확대를 말하고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이 염원이 며─남북관계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념 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남북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 일기반미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라고 하다. 또한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다시 확인하다.
- 역사적인 평양·공연을 위한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아시아나 항공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하다. 자린 메타가 이끄는 단원과 가족 후원자 취재진 등 280여명은 순안국제공항에 도착, 송석환 문화성부상겸 조선문학예술인총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주최의 환영만찬에 함께하다.
- 예의도 국회 앞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연대 주최로 '6.15 10.4남북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 철폐 송현아 즉각석방촉구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출범 을 앞두고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송현아 선전위원장의 즉각석방과 남주홍통일부장관내정철회를 촉구하다.

26 --

☎ 용산국방부 앞에서 범남본 평통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통

## 2008년 2월

일광장등 공동으로 제76차평화군축집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중단과 불법적인 주하미군가족숙소제공비용 부담중단등을 촉구하다.

- ◎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24일 국가보안법상 이 적표현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전교조 경남지부소속 최보경 전통일위원장의집과 학교(간디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내장하드 (D) 플로피디스크 등의 자료와 서적 등을 압수해가 것으로 밝혀지다. 이날 뒤늦게밝혀지다.
- '키리졸브 독수리(KR FE)연습'참가차 부산해군작적사령부에 입항한 초대형 핵잠수함 '오하이오'호가 공개되다.사정거리 1,609킬로미터인 '토마호크' 154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는 길이 171미터 너비 12.8미터 수중배수량 18.750톤으로 미국최대규모 핵잠수함이다. 160여명의 승조원과 특수작전요원 66명, 3개월 보급물자를 적재할수 있다.
- ★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뉴욕팔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역사적 인 평양공연을 하다. 무대 양쪽에 북 ·미양국기가 걸린 가운 데 두 나라 국가가 연주되었고 예정에 따라 바그너작곡 '로 엔그란중 제3막서곡',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거쉰 작곡 '파리의 미국인' 순으로 연주하다. 앙콜곡으로는 '아리랑' 을 연주하여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다. 이번 연주회에는 북 측에서 양협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리근 외무성미국국장, 박경철 민화협부회장, 한성렬 전유엔주재 차석대사, 강능수 문화상, 문재철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위 원장대리, 송석환 문화성부장(조선예술교류협회회장) 등 이, 미측에서는 페리 전 국방장관, 도널드, 그래그전 주한대 사, 에벤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등이 함께 하다. 또한 공연에는 여러 나라의 취재경쟁도 치열해 남측에서 9 명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 130여명이 파견되다. AP AFT DPA로이터 통신 등 세계중요통신사와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3대 신문사, CNN ABC BBC CBS 폭스뉴스 등 중요방송사 시사주간지 타임과뉴스위크와 기자일본에서 교토통신 NHK 방송사아 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이 취재하다.
- ☞ 명동 향린교회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10개 노동인권사회단첼 구성된 '구속노동자 사면석방촉구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구속노동자후원회와 양심수후원회에 보내온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의 편지를 모아 책으로 엮은 구속 노동자들의 옥중서한집 <푸른 생명> 출판기념 출판문화제 '저 창살에 햇살이'가 열리다. 사전행사로

는 노동자투쟁현장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사무국장사회로 권오헌 회장의 여는 말, 노동자시 인조선남(조기현)시인의 옥중시 낭송에 이어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위원장, 포스코건설노조구속자 심진보씨의 부인 정덕자님 등 인사말이 있었음. 이어이른바 '일심회'사건손 정목씨부인 김정라님의 감옥에서 온 편지낭송과 민중가수 지민주님의 노래공연이 있었음. 행사를 마치고 향린교회 옆 음식점에서 오신손님들과 뒤풀이 시간을 가지며 구속자들 의가족들과 석방된양심수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하다.

#### 27

- 집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지경님을 면화하였습니다. 포항 건설노조원인 이지경님은 포스코농성 파업관련 혐의로 3년 6월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입니다. 지난해 연말 사면으로 남 은 형기가 반으로 줄었지만 이명박정권의 출범과 맞물려있 어서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새로이 투쟁의지를 다지고 있 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 함께 하여 서로 동지의 연을 돈독히 하고 위로와 좋은 기운을 주 고받는 결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소수영 김성환 임미영 함 께 했습니다
- 여의도 국회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남 주홍통일부장관내정자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묵 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상열 공동대표의 여는 말, 21세기한대 연의장(광운대총학생회장)의 규탄발언, 노수회 범남본부의 장의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 국가인권위11층 배움터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참여정부국기보안법적용실태보고 및 국가보안법폐지운 동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다. 1부 '국기보안법 적용실태보고회'에서는 민기협 박성희간사의 '참여정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보고', 이덕영 김미연(한총련) 장여경(진보인터넷활동가) 성옥규(전교조통일위원회조작국장)등 각부문적용사례 발표가 있었음. 2부 국기보안법폐지운 동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박석운 씨 사회로 박래군 폐지연대정책기획팀장의 발제, 배성인교수(민교협) 이정희변호사(민변) 한용진(국보연대사무총장)등의 토론이 있었음.
- 耐 진실화해정리위원회 4층회의실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주최로 체 3회 유족증인사례발표회' 가 열리다. 윤호상 유족회대외협력위원장의 개회인사에 이 어 박형찬회장의 인시말, 김낙중 통일운동가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장의 격려말이 있었고 정근씨가 여순항쟁 때 희생된 부친정태중 모친 차양자씨의희생사례를 발표하다.

#### · 012/03/01/01/01/01/01

- ♣ 유기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이 서울경 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 장안동 보안수사대로 강제 연행 조사를 받다. 유기진의장은 1996년 연대항쟁관련 국가보 안법 위반반혐의로 구속된 바 있었고 1999년 명지대대학교 총 학생회장 7기 한총련의장 범청학련 남측본부의장을 역임하고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10년 정치수배를 당해왔음. 수배생활에 서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과 6.15청학연대 상임대표 6.15 민족공동위 청학본부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었으며 2004년엔 황선 민주노동당전부대변인과 결혼 두 딸을 두고 있음
- ☞ 평양 모란봉국장에서 조선국립교향악단 단원 4명과 뉴욕필하 모닉오케스트라 단원4명이 사상처음으로 실내악 협연을 하다. 이들은 빙글라데시계 미국소녀인 타스밀라(12)가 조선어린이 들을 위해 작곡한 고요함을 연주해 관객의 뜨거운 박수를 받다. 멘델스존 작곡'현악8중주'바그너의'마이스터싱어', 차이코 프스키의'로미오와 줄리엣'등을 연주하다.이날 필하모닉 단 원들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관람하다.

28 ----

- 정찰청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연대 6.15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한국진보연대 공동으로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의장연행 공안당국규탄 국가보안법분쇄긴급기자회견을열다. 황순원 국보연대집행일꾼 사회로 권오헌 국보연대공동대표(양심수후원회장)의 여는말, 김도윤 청학연대대표의 경력발표, 김호 청학연대집행위원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사무국장 등 규탄발언과 윤기진의장의 부친 윤범노선생의 기족 인사말, 박희진 한청부회장의 기자회견문 당독이 있었음. 마치고 권오헌 박희진 항의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하다.
- 합골공원 앞에서 민가협968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헌 공 동의장의 윤기진의장구속 등 국가보안법과 공안탄압규탄발 (여는말), 황선(윤기진씨부인)과 이재춘(송현아씨남편)의 가족사례발언 임기란전상임의장의 양심석방촉구발언 등이 있었음. 마치고 한총련(남총련)학생들과 민가협어머님들 윤기진 의장 가족 권오헌 등 장안동 보안수사대 항의방문 규탄시위가 있었고 가족면회가 있었음. 권오헌 회장은 이날 방중랑경찰서로유기진 의장 면회하다.
- 耐계최대의 핵추진항공모함 '니미츠'호가 '키리졸브 독수 리연습' 참가차이날 부산 백운포에 위치한해군작전 사령부 에 입항하다. 배수량 93,000톤 길이 332.9미터 폭 76.8미터 축구장 3배 넓이의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으며 주한미군 전.

투기수와 맞먹는 80여기의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1개 항공모함 전투단은 각종 전투기 전폭기등을 탑재한항 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축함 핵잠수함 군수자원함 이지스함 등 수십 척의각 기능별 함정으로 편성전개범위는 150킬로 미터네이른다. 백운포 해군기지가 완공된 후 2006년 3월에 '링컨호' 7월에 '엔터프라이즈호' 2007년 3월엔 '레이건호' 등 매년 초대형 항공모함이 연례적으로 입항하고 있음. 한편이날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 정문 앞에서 100여개부 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중단과 핵잠수함 즉각 회항할것을 촉구하다.

- ★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인부장검사)는 1987년 KAL858 기 실종사건을 소재로쓴 소설 배후(2003. 청해)의 작가와 출판물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다.
- ☞ 문경식전의장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강기갑(경남사천)의원과 강병기(경남진주)사무총장의 지역구후보를 추처하다.
- ☞ 영등포전교조회의실에서 한국진보연대 2008총회(대표자회의)가 열리다. 2007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에 대한 토의와 승인 규약개정안 승인(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제) 인선안 등 승인하다. 이어 2008년 사업계획안과 진조연대혁신안등 토의 끝에 승인하다. (예산안은 다음 대표자회의때심의하기로 하다.)